

(지역구, 성명순)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전주시의회

2019

전주시의회 회보 **제23호**
www.council.jeonju.go.kr

전주시의회
JEONJU CITY COUNCIL



13


15


17


19

contents

december 2018

04 발간사 / 전주시의회 의장
05 축 사 / 전주시장
06 전주시의회 연혁
07 제11대 후반기 전주시의회 구성
08 제11대 전주시의회 의원 총람
10 2018 의정활동 성과
12 상임위원회 / 특별위원회 활동
24 건의안 / 성명서


21



23





26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35 의원연구단체 활동
40 2018 의원 의정활동
73 지방의회 체험교실
74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다짐행사
76 전주풍경_팔복예술공장
78 전주풍경_유아숲 체험원
80 2019년도 회기 운영 계획
81 편집후기

전주시의회보 **제23호** **2019**
www.council.jeonju.go.kr



발간등록번호 77-4640065-000001-11
발행인 전주시의회 의장 박병술
발행처 전주시의회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편집인 전주시의회 사무국
Tel_063.230.3730 / Fax_063.230.3657
디자인/인쇄 지디기획

"시민의 신뢰 바탕으로 새롭게 나아가는 시의회 조성"



지방자치시대의 발전과 더불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시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의회의 활동과 비전을 담은 〈제 23호 의회보〉의 발간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해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출범한 제 11대의회가'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의회'를 목표로 부단히 달려왔던 시간과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값진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전주시의회는 오직 시민의 뜻과 행복을 위하여 진력하며 민원의 현장을 직접 발로 뛰었고, 명실상부한 호남의 중심도시로 떠오르고 있는 전주의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 정체성 회복 및 갈등해소에도 적극 나서는 등 시민의 충실한 대변자요 울타리가 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시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의 창구가 되기 위해 의회를 개방하고 견학프로그램 등을 운영했으며, 조례연구회, 의정포럼연구회, 생태교통 연구회, 청정연구회, 미래세대연구회의 활동을 통해 연구하며 정책을 발굴하는 의회를 만들어왔습니다.

이제 황금돼지의 해라는 2019년 새해를 맞아, 그간의 땀방울을 밑거름으로 지역의 더 높은 비전과 꿈을 이룰 것을 약속드리며,

정치란 천하를 바로 잡는 것이라는 정자정야(政者正也)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되새겨, 시민 여러분의 신뢰를 바탕으로 새롭게 나아가는 전주시의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새해에도 하시는 모든 일에 기쁨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
전주시의회의장 **박 병 술**

"우리가 만들어가는 전주의 내일에 관심과 지원을"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 그리고 전주시의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2018년 한 해 동안 쉼 없이 달려온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담은 전주시의회보 제23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6월에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34명의 의원님들과 함께 전주시의회는 또다른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의원 명부에 이름을 올린 15명의 초선의원님들과 역대 가장 많은 여성의원님들의 합류로, 제11대 전주시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이고 폭 넓은 의정활동의 기대를 모았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직접 발로 뛰며 시민의 작은 목소리 하나에도 귀 기울이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은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2019년을 더욱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방분권시대를 선도하며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 의원님들께 뜨거운 박수와 감사의 인사를 보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8년이었습니다. 숨 가쁘게 달려온 6·13 지방선거를 통해 민선 7기의 시작을 알린 전주는 다시 초심의 마음을 가지고 출발선에 섰습니다. 지난 4년, 전주는 사람, 생태, 문화라는 3대 가치를 중심으로 시민의 삶에 품격을 더하는 위대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른 도시들이 좇는 길을 따라가지 않고, 어렵지만 전주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며 도시의 운명을 개척해왔습니다.

민선 6기 전주가 도시의 정체성과 방향을 잡아가는 과정이었다면, 민선 7기 전주는 본격적인 전주의 시대를 열어가는 시기입니다. 전주는 '문화번영 경제성장'이라는 미래 비전을 내세워 전주의 찬란한 문화를 시민의 일상으로 끌어오고, 산업과 일자리로 연결하여 시민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전주시의회보 제23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더불어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전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
전주시장 김 승 수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제헌헌법 제97조에 의거 1949년 7월 4일 공포된 법률 제32호 지방자치법이 같은 해 12월 15일자로 개정되어 1950년 12월 지방자치를 위한 선거를 실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1950년 6 · 25동란으로 인하여 지연되어 오다가 1952년 4월 25일 초대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전주시의회가 구성되었다.

- 1949. 07. 04 지방자치법 제정 공포 (법률 제32호)
- 1952. 04. 25 초대 전주시의회 의원 선거(21명)
- 1956. 08. 08 제2대 전주시의회 의원 선거(16명)
- 1960. 12. 19 제3대 전주시의회 의원 선거(18명)
- 1961. 05. 16 5 · 16 쿠데타로 지방의회 해산(군사혁명위 포고 제4회)
- 1990. 12. 31 지방자치법 제8차 개정(법률 제4301호)
- 1991. 03. 26 제4대 전주시의회 의원 선거(45명)
- 1995. 06. 27 제5대 전주시의회 의원 선거(45명)
- 1998. 06. 04 제6대 전주시의회 의원 선거(40명)
- 2002. 06. 13 제7대 전주시의회 의원 선거(35명)
- 2006. 05. 31 제8대 전주시의회 의원 선거(34명)
- 2010. 06. 02 제9대 전주시의회 의원 선거(34명)
- 2014. 06. 04 제10대 전주시의회 의원 선거(34명)
- 2018. 06. 13 제11대 전주시의회 의원 선거(34명)





의 장

박 병 술

(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부 의 장

강 동 화

(진북, 인후1·2동, 금암1·2동)

위원회	운영위원회	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문화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현덕 (삼천1·2·3동)	백영규 (중앙,완산,중화산1·2동)	고미희 (효자4·5동)	박형배 (효자4·5동)	김진옥 (송천1·2동)
부위원장	강승원 (덕진,팔복,조촌,동산,혁신동)	최용철 (풍남,노송,인후3동)	이남숙 (동서학,서서학,평화1·2동)	김승섭 (삼천1·2·3동)	박선전 (진북,인후1·2동,금암1·2동)
위 원	김동헌 (삼천1·2·3동)	강승원 (덕진,팔복,조촌,동산,혁신동)	강동화 (진북,인후1·2동,금암1·2동)	김남규 (송천1·2동)	김은영 (효자1·2·3동)
	김윤철 (풍남,노송,인후3동)	김현덕 (삼천1·2·3동)	김윤권 (송천1·2동)	김동헌 (삼천1·2·3동)	박윤정 (비례대표)
	박선전 (진북,인후1·2동,금암1·2동)	김호성 (진북,인후1·2동,금암1·2동)	송승용 (동서학,서서학,평화1·2동)	김원주 (풍남,노송,인후3동)	서난이 (우아1·2동,호성동)
	박윤정 (비례대표)	서윤근 (우아1·2동,호성동)	이경신 (효자1·2·3동)	김윤철 (풍남,노송,인후3동)	서선희 (서신동)
	서윤근 (우아1·2동,호성동)	정섬길 (서신동)	이윤자 (비례대표)	송영진 (덕진,팔복,조촌,동산,혁신동)	송상준 (덕진,팔복,조촌,동산,혁신동)
	이윤자 (비례대표)	한승진 (비례대표)	허옥희 (비례대표)	이기동 (중앙,완산,중화산1·2동)	양영환 (동서학,서서학,평화1·2동)
	허옥희 (비례대표)				이미숙 (효자4·5동)

제11대 전주시의회 의원



의장 **박병술**
(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부의장 **강동화**
(진북, 인후1·2동, 금암1·2동)



백영규
(중앙, 완산, 중화산1·2동)



이기동
(중앙, 완산, 중화산1·2동)



송승용
(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양영환
(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이남숙
(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김원주
(풍남, 노송, 인후3동)



김윤철
(풍남, 노송, 인후3동)



최용철
(풍남, 노송, 인후3동)



서선희
(서신동)



정섬길
(서신동)



고미희
(효자4·5동)



박형배
(효자4·5동)



이미숙
(효자4·5동)



김은영
(효자1·2·3동)



이경신
(효자1·2·3동)



김동헌
(삼천1·2·3동)



김승섭
(삼천1·2·3동)



김현덕
(삼천1·2·3동)



김남규
(송천1·2동)



김윤권
(송천1·2동)



김진옥
(송천1·2동)



강승원
(덕진, 팔복, 조촌, 동산, 혁신동)



송상준
(덕진, 팔복, 조촌, 동산, 혁신동)



송영진
(덕진, 팔복, 조촌, 동산, 혁신동)



김호성
(진북, 인후1·2동, 금암1·2동)



박선전
(진북, 인후1·2동, 금암1·2동)



서난이
(우아1·2동, 호성동)



서윤근
(우아1·2동, 호성동)



박윤정
(비례대표)



이윤자
(비례대표)



한승진
(비례대표)



허옥희
(비례대표)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전주시의회 기틀 다져

전주시의회가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전주시의회'를 기치로 내걸고 2018년 7월 제11대 전반기 원구성을 시작으로 시민의 행복 실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그 어느 해보다 전주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힘차게 달려온 전주시의회의 의정활동을 간추려 본다.



민생 조례 등 177건 처리

전주시의회는 올 한 해 동안 정례회(2회)와 임시회(7회) 등 9차례의 회의를 열어 조례안 70건, 동의안 67건, 건의안 2건, 결의안 1건 등 총 17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의원이 발의한 안건은 38건으로 범죄예방 활동 지원,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 다양한 조례를 직접 발의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써왔다.

시의회는 지난 2월 무주태권도원의 위상제고 및 성지화의 고유 목적을 위해 「국기원! 전북 전주 이전 촉구를 위한 건의안」을 채택하고 국기원이 추진하고 있는 리모델링 계획을 중단하고 전주에 국기원을 이전할 것을 요구했다. 또 지난 9월에는 전주시의회와 전주시가 함께 「기금운용본부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월스트리트저널 왜곡보도와 부산상공회의소를 규탄하며, 전북혁신도시를 '제3의 금융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의 조속한 실현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시의회는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새만금국제공항 조기 건설 촉구 건의안」, 「SSBT 연기금특화 전주사무소 개설 환영!」 성명서 등을 발표하기도 했다.

시정 현안에 시민 목소리 대변

의원들은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에 대한 환경정책, 보편적 복지정책, 문화 · 예술정책, 출생정책, 공공임대주택사업, 도시정비사업 등 다양한 주제의 시정질문(17건)과 5분 자유발언(55건)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 · 감시 역할은 물론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집행부 견제 · 감시 역할 충실

시의회는 또 지난 11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 · 감시 역할에도 충실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 집행부가 추진해온 각종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민의 혈세가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예산집행과정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주요 시책 및 사업에 대한 추진결과 등을 점검했다. 특히,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 실시를 위해 시정의 위법 · 부당 행위, 예산낭비 사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관행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시민 제보를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받기도 했다.

의원 연구 역량 및 전문성 강화

시의회는 조례연구회, 의정포럼연구회, 생태교통연구회, 청정연구회, 미래세대연구회 등 5개의 의원연구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현안과 다양한 사회 문제와 관련한 각종 토론회, 강연회, 간담회 등을 20여 차례 실시하여 의원들의 연구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힘써오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청년 주거문제 해결, 전주형 저출생 대책, 안전한 보행로 조성,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전단과 처방, 민생 조례등 입법 연구활동과 관련한 토론회와 강연회를 개최하여 시민, 사회단체,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시민 소통 강화

시의회는 또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의정정책자문단, 산학협력 현장실습, 의원 홈페이지 동민과의 대화 등을 운영하여 역동적인 소통 의정을 펼쳐왔다. 이 외에도 어린이의회 체험교실 운영, 본회의 생중계 및 방청 등을 통해 의회 현장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오고 있으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의정 소식을 시민들에게 전하고 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 현 덕**



부위원장 **강 승 원**

생산적인 의정활동 환경 조성
원활한 의회 운영 주력

의회운영위원회(김현덕, 강승원, 김동헌, 김윤철, 박선전, 박윤정, 서윤근, 이윤자, 허옥희 의원)는 의회의 전반적 업무를 관장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연구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원들의 역량강화 연찬회를 개최하는 등 생산적인 의정활동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해왔다. 아울러 내실 있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 통해 시민이 감동하는 의정활동과 청렴하고 바른 의회상을 구현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올해 조례 제·개정안, 건의안 등 총16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했다.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전주시의회 의원이 시민의 진정한 봉사자로서 타의 모범이 되며 주민의 뜻에 따라 그 직무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 주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에 헌신 봉사할 것을 강조 했다. 또 「전주시의회 정책자문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으로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정책의회로 거듭나고 정책의 발굴·연구에 노력하는 의회 풍토를 정립하기 위해 정원을 7명으로 증원했다.





① 전주시의회, 수원시의회 친선 축구 경기 개최
② 전주시의회 연찬회
③ 전주시의회 한마음 체육대회
④ 전주시의회 한마음 체육대회







행정위원회



위원장 **백 영 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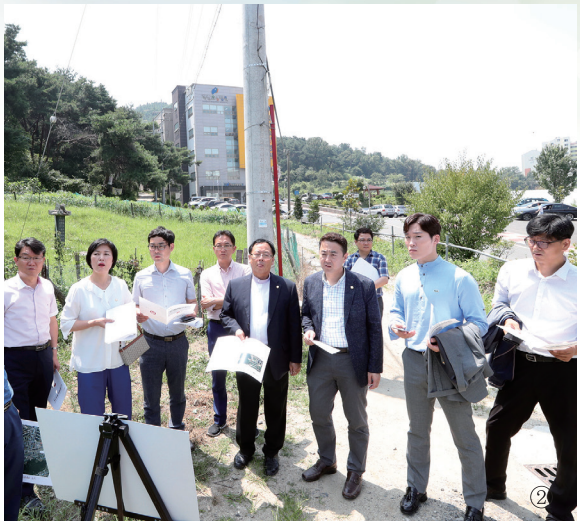


부위원장 **최 용 철**

시민의 편에서 불합리한 행정 개선
집행부 감시 · 견제 역할 충실

행정위원회(백영규, 최용철, 강승원, 김현덕, 김호성, 서윤근, 정섬길, 한승진 의원)는 전주시정의 홍보와 예산, 인사, 감사, 조직관리 및 공유재산관리 등 시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보담당관 · 감사담당관 · 시민소통담당관 · 기획조정국 · 완산도서관 · 덕진도서관 · 전주풍남학사사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하고 있다. 특히 시민을 위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집행을 감시 · 견제하고, 건전 재정과 투명한 집행 절차를 위한 의정활동에 주력하며 민의(民意)가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제347회 임시회부터 제355회 정례회까지 9차례 회의에서 조례안 17건, 동의안 7건 등 총 25건의 안건을 심사 · 처리했다. 주요 처리 안건에는 「전주시 남북 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있다. 위원회는 또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전주실내체육관 신축계획 현장,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사업 현장 등 주요 시책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① 전주시시설관리공단 현장활동
② 평화동 남부생활권 조성 예정지 현장활동
③ 수원시의회 비교견학
④ 전주시자원봉사센터 현장활동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고 미 희**



부위원장 **이 남 숙**

시민의 복리 증진과 안전한 환경 조성 주력
복지 취약계층 자립 촉진

복지환경위원회(고미희, 이남숙, 강동화, 김윤권, 송승용, 이경신, 이윤자, 허옥희 의원)는 66만 시민에게 생산적인 복지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 환경보전에 정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으며, 복지환경국 · 전주시보건소 · 맑은물사업소 · 동물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하고 있다. 위원회는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복지수요와 환경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여 더 나은 전주시민의 삶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시책 추진과 관련한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집행부를 견제 · 감시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뜻을 수렴하기 위한 다각적인 소통의 채널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있다. 위원회는 올 한 해 9차례 회의를 열어 조례안 16건, 동의안 9건 등 총 27건의 안건을 다뤘다. 그동안 처리한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등의 제 · 개정을 통해 저출산 극복과 복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전주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제 · 개정으로 시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또 자원순환특화단지,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자림복지재단 등을 방문하여 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의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요 시책사업 추진 상황을 꼼꼼히 점검했다.









①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현장활동
② 자림복지재단 부지 현장활동
③ 자연생태관 현장활동
④ 전주 어울림센터 현장활동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 **박 형 배**



부위원장 **김 승 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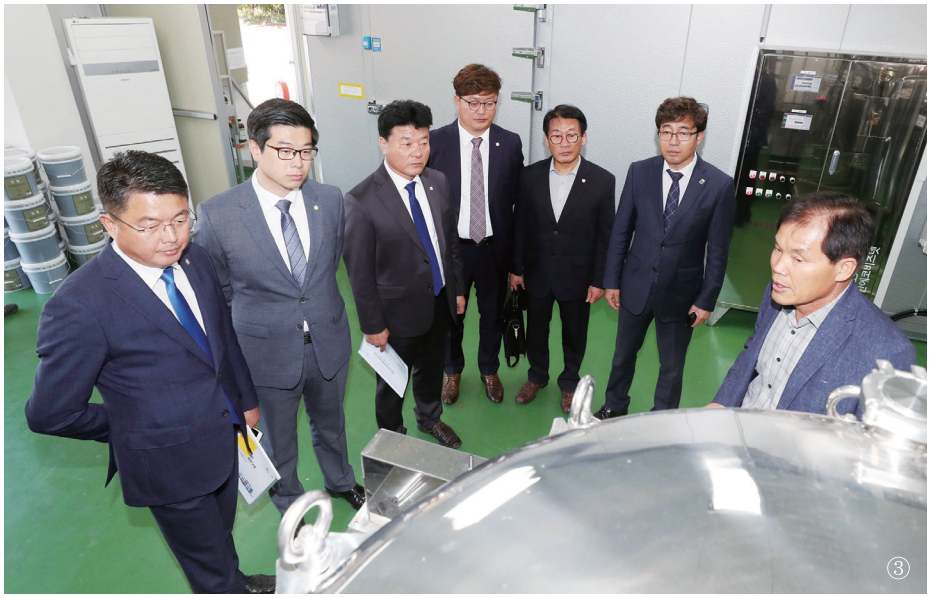
전통문화 및 탄소산업도시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문화경제위원회(박형배, 김승섭, 김남규, 김동헌, 김원주, 김윤철, 송영진, 이기동 의원)는 시민들의 복리 증진 및 예술창달, 지역경제 활성화, 지식 정보화사회 구현등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으며, 문화관광체육국 · 신성장산업본부 · 농업기술센터 · 예술단운영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하고 있다. 위원회는 세계적인 전통문화도시로 떠오르고 있는 전주의 명성을 드높이고 전통과 미래가 조화되는 잘 사는 전주를 만들기 위해 진력하고 있으며 특히, 관광문화 콘텐츠 개발 및 산업화를 통한 고용 창출과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에 중점을 두고 소상공인의 육성 및 지원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해왔다. 위원회는 올 한 해 9차례 회의를 개최해 조례안 6건, 동의안 19건 등 총 25건의 안건을 심사 · 의결했다. 특히, 「전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주음식 명인 · 명소 등 발굴 육성 조례」,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을 제 · 개정해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을 통한 관광산업의 육성 발전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학교급식지원센터, 드론축구 체험장, 농생명소재연구원,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등에 현장활동을 실시했으며, 국제3D프린팅 · 드론 코리아 엑스포 준비사항을 직접 점검하며 국제적인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는데 노력했다.



①


②


③

① 한국탄소융합기술원 현장활동
② 농생명소재연구원 현장활동
③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현장활동
④ 한국전통문화전당 현장활동


④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 진 옥**



부위원장 **박 선 전**

친환경 녹색생태도시 조성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 구현

도시건설위원회(김진옥, 박선전, 김은영, 박윤정, 서난이, 서선희, 송상준, 양영환, 이미숙 의원)는 시민안전담당관 · 생태도시국 · 사회적경제지원단 · 시민교통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하며 전주시를 쾌적하고 안정된 도시와 친환경적인 녹색생태도시로 만들기 위한 도시건설 행정분야를 책임지고 있다. 위원회는 도심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원도심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여 친환경 녹색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고 있다. 위원회는 제347회 임시회부터 제355회 정례회까지 9차례 회의에서 조례안 9건, 동의안 6건, 의견청취 6건 등 총 21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했다.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전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 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이 원안가결 됐다. 위원회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도시계획 및 시민교통분야 전문지식의 습득과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연찬회를 개최하였으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련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한옥마을 대성공영주차장, 금암광장 교차로 기하구조 개선사업 현장 등을 방문하여 시민의 생활과 직접 연관되는 사업현장을 찾아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힘을 쏟았다.



① 대성공영주차장 현장활동
② 공영자전거대여소 현장활동
③ 가련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사업부지 현장활동
④ 금암광장 교차로 기하구조 개선사업 현장활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 난 이**



부위원장 **송 영 진**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 방향 제시
재정 효율성 극대화 주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서난이, 송영진, 김호성, 김승섭, 김원주, 김윤권, 박윤정, 서선희, 송상준, 송승용, 정섬길, 한승진, 허옥희 의원)는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예산이 낭비 되지 않고 전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고 투명하게 심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전주시 전반의 예산안과 결산의 종합적인 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위원회는 집행부의 경제활동에 있어 재정의 역할이 증대되고 이에 따라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심사기능을 한층 더 전문화하고 효율화하기 위해 예산안과 결산승인안 심사를 앞두고 두 차례의 연찬회를 통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심사능력을 향상시켰다.

위원회는 2018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변동된 국 · 도비 보조사업 조정 및 법적 · 의무적 미부담 경비 등으로 편성된 「제1회 추가경정 일반 ·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단순 삭감에 그치는 것이 아닌 불요한 예산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맞춤형 복지체계 확충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심사에서는 예산의 반복적인 이월과 과다한 불용 등 비효율적 예산집행 사례를 시정 · 개선하도록 집행부에 요구했다.



①



②



③

① 예산심사기법 활용을 위한 초청 강연회
② 예산 및 결산 심사 기법 활용을 위한 초청 강연회
③ 예산 및 결산 심사 기법 활용을 위한 초청 강연회

건의안

국기원을 전주로 이전하라!

전주시의회가 무주태권도원의 위상제고 및 성지화의고유목적을 위해 국기원이 추진하고 있는 리모델링 계획을 중단하고 전주에 국기원을 이전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2월 1일 제34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기원! 전북 전주 이전 촉구를 위한 건의안」을 채택하고 당초 추진했던 국기원의 무주태권도원 이전이 어렵다면 그 대안으로 전주이전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채택한 건의안에서 시의회는 무주태권도원이 조성된 후 태권도 집약화를 통해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태권도문화콘텐츠가 강조되고 있으나 국기원은 무주의 기반여건 등을 거론하며 무주 이전 대신에 500억원의 예산을 들여 국기원 리모델링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국기원의 리모델링 사업이 내부적으로는 태권도인들에게 밀실사업으로 비춰지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무주태권도원을 반쪽으로 나누고 결국에는 태권도인들 마저 양분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시의회는 국기원의 전주이전이 무주태권도원 이전에 가장 부정적인 접근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최근 들어 한옥마을 관광콘텐츠 조성 등으로 연간 1천만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찾아오는 전주시의 여건을 감안할 때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또 현실성이 없이 추진되는 국기원의 태권도 성지화 사업(리모델링)은 일부 태권도인들의 생각만을 반영한 것으로 무주태권도원의 설립 취지인 태권도 집약화를 통한 태권도 세계화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의안을 대표 제안한 강동화 전주시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태권도 문화콘텐츠화를 추진하고 있고 무주를 중심으로 서울 등 일부 도시를 연결하는 태권시티 네트워크형 클러스터 사업도 추진될 예정인 만큼 우리가 먼저 국기원을 전주로 이전하여 전북 경제의 도약과 전주의 발전을 견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명서

기금운용본부 흔들기 즉각 중단하라!

전주시의회와 전주시가 지방의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주시의회는 9월 17일 전주시와 함께 월스트리트저널 왜곡보도와 부산상공회의소 규탄 성명서를 내고 "기금운용본부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주시의회는 "세계적인 언론사인 월스트리트저널이 전북혁신도시를 콕 집어 '국민연기금운용본부 투자책임자(CIO) 채용이 소재지 위치와 돼지냄새와 낮은 임금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는 비아냥거림의 기사를 실었다."고 분개하며 "많은 이들이 공단과 기금운용 본부의 전북 이전을 노골적으로 반대 했지만 지난해 기금운용본부의 운용 수익률은 7.28%로 최근 5년간 통틀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의 선진 금융도시 세크라멘토는 농업중심도시임에도 크게 번영하고 있으며 전북혁신도시의 다소 부족한 인프라는 앞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는 과제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제 3금융 중심지 전북 추가 지정을 반대하는 부산상공회의소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가했다. "전북혁신도시 제3금융중심지 반대는 기득권에 눈이 먼 정치공세이자, 공공기관 추가이전 시 금융관련 기관을 독점하겠다는 노림수에 불과하다"며 "상생발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의 본뜻을 모르냐"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부도 전북혁신도시를 '제3의 금융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을 조속히 실현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전주시의회는 지역의 저력과 대통령의 약속을 믿고 제3의 금융도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천명했다.

성명서

SSBT(스테이트스트리트 은행) 연기금특화 전주사무소 개설 환영!

전주시의회가 스테이트스트리트 은행(SSBT)이 내년 1월초 전주에 연기금 운용업무에 특화된 사무소를 개설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환영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의회는 11월 15일 「SSBT 전주사무소 개설을 적극 환영한다」는 성명을 통해 국민연금공단과 글로벌 수탁은행 스테이트스트리트 은행(SSBT)이 MOU를 체결하고, 내년 1월초 전주에 연기금 운용업무에 특화된 사무소를 개설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66만 전주시민의 뜻을 모은 환영 성명서를 발표했다. 미국 보스톤에 본사를 두고 세계 100여 국가에 거점 네트워킹을 가지고 있는 업계 1위의 금융기관 SSBT의 전주사무소 개설은 전북혁신도시의 금융 중심지 지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개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시의회는 무엇보다 전북혁신도시 금융 중심지 지정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SSBT의 연기금특화 전주사무소 개소는 평가지표에서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요소이자 향후 국책 금융기관의 집적에도 대단히 중요한 이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병술 전주시의회의장은 "앞으로 전주시의회는 전북혁신도시의 제3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해 전라북도와 전주시 등 지자체는 물론 정치권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하고 "글로벌 투자 기관 등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건의안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하라!

전주시의회가 전북경제 활성화와 2023년 새만금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12월 20일 제35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기적절한 선택이며, 고유한 멋과 전통이 있는 우리고장이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빠르게 열어줄 것이라며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 약속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채택한 건의안에서 시의회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 · 사회적 상황대응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국무회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지난 2005년 추진되었던 전북권 공항 건설사업이 국토부에서 공사계약 및 보상까지 완료한 사안임을 고려하면, 새만금 국제공항은 중단된 전북권 공항 건설사업의 재추진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시의회는 2019년 정부예산안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이유로 새만금 국제공항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전주시민을 비롯한 200만 전라북도민이 큰 상실감에 빠져있다며,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은 새만금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첫 단추이자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이며 전북경제권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구축사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또 2023년 8월 새만금 일원에서 169개국 5만여명이 참가하여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최대규모의 국제행사인 세계잼버리 대회유치 홍보에 정부가 국제연맹에 국제공항건설을 약속한 내용이며, 문재인 대통령도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구축을 국정과제에 포함 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건의안을 대표 제안한 강동화 전주시의회 부의장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국가 주도로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추진이 포함되었고 이를 위해 공공주도 청와대에 새만금사업 전담부서 설치, 공공주도 매립, 국제공항 · 신항만 등 물류교통망 조기 구축이 명시되었기에 새만금 국제공항을 조기 건설하여 전북 경제의 도약과 전주의 발전을 견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11대 전주시의회가 7월 9일 개원식을 갖고 희망의 첫 걸음을 알렸다. 전주시의회는 법령준수 및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전주시의회가 9월 17일 월스트리트저널과 부산상공회의소 왜곡을 규탄하며 대통령공약 '제3금융도시 조성'을 조속히 실현할 것을 촉구했다.



● 전주시의회가 11월 19일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전반적인 내용과 새롭게 바뀌는 건강보험제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남부지사장 초청 교육을 실시했다.



●● 전주시의회는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정책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11월 14일 전주시의회 정책자문단 위촉식을 열고, 도시재생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유비에스디 대표 천상덕위원을 위촉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0월 17일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위원들의 예산안 심사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연찬회를 개최했다.

도시건설위원회가 8월 30일 의정활동에 필요한 도시계획 및 시민교통 분야 전문지식의 습득과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연찬회를 개최했다.





전주시의회가 9월 19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불황 속에 서민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 나섰다.



전주시의회가 추석을 앞두고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전주시의회는 10월 18일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 성희롱 · 성매매 · 가정폭력 중심의 4대폭력 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전주시의회와 일본 가나자와시의회가 지난 10월 26일 지속적인 우호협력 교류를 통해 전통문화 예술도시 조성과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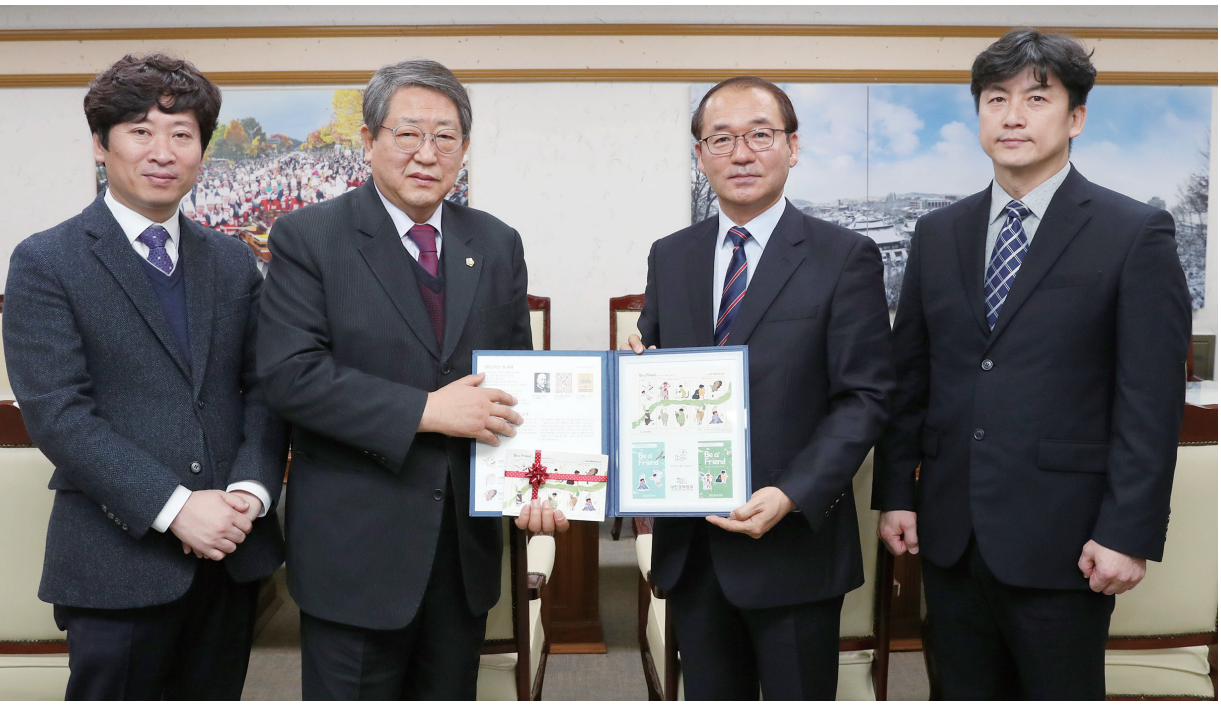
U-20 월드컵 개최로 우의를 다져온 전주시의회와 수원시의회가 11월 17일 친선 축구 경기를 갖고 양 도시 간 우호 협력 관계를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 가기로 했다.

전주시의회가 11월 19일부터 열리는 정례회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심의에 대한 의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의원 연찬회를 개최했다.





2018 전주 비빔밥 축제



대한결핵협회 크리스마스 씰 전달식



- 전주시의회 박병술 의장이 10월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남부지사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되어 공단의 주요업무와 지사현황을 청취하고 내방 민원인을 만나는 등 건강보험공단 업무에 대한 현장체험의 시간을 가졌다.

- 전주시의회 축구동호회(단장 강동화 의원)가 창단 4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12월 10일 박병술 의장을 비롯한 전주시의회 축구동호회원과 김승수 전주시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의 밤을 개최했다.





● 전주시의회와 전주시가 12월 20일 전주시의회에서 지난 11월 한 달간 '해외동포를 위한 사랑의 책 보내기' 캠페인을 통해 기증받은 도서와 한복을 전달했다.

● 전주시의회가 12월 20일 제355회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2018년도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했다.



청정연구회



성공적인 의정활동 위한 초청 강연회 개최

청정연구회(회장 김승섭 의원)가 지난 11월 13일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진단과 처방” 이라는 주제로 초청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강연회는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김대희 교수를 모시고 구체적인 의정사례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의회가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의정전문성을 높이고 의원자질함양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공유하였다. 특히,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올바르게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감시와 견제 기능에 충실하고자 예산심의 예비지식 확보, 조례 제 · 개정에 필요 입법정보 파악,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기법 등 집중적으로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제11대 전주시의회 초선의원 15명이 주민이 원하는 능력 있고 깨끗한 의정활동을 위해 연구회를 구성하였고, 앞으로도 의원스스로 주민을 대표하는 하나의 기관으로서 각자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같이 생각하고 연구활동들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조례연구회



시민을 위한 민생조례! 조례연구회가 앞장

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는 지난 9월 11일 제1차 간담회를 갖고 시민민생 조례 입법 활성화 및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의원 조례입안 강화를 위한 출범 간담회를 가졌다. 특히 이날은 2018년도 조례연구회의 전반적인 연구활동의 방향성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써, 중점 연구 활동을 사안별로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구체화하였다. 중점사안으로는 조례 관련 전문성 강화 차원의 전문가 초청강연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매월 자체간담회를 통하여 분야별 민생조례 입안사안을 발제하고 토론하며 쟁점 조례를 선정하여 공청회, 토론회, 세미나로 세밀화 해나가는 조례입안 연구 시스템을 정착할 계획이다.

특히 쟁점조례와 관련하여 집행부서와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실무간담회를 주관하여 내실 있는 민생조례 성과를 도출 하고, 이를 근거로 전주시의회 내 · 외적인 의원입법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제11대 전주시의회 의원입법 관련 적정한 입안 사례를 취합하여, 의원입법 활성화의 분석 자료를 활용한 내실 있는 민생조례 입안을 디자인하고,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조례의 디자인 프로세스를 갖춰 나갈 계획이다.

조례연구회 이기동 회장은 “조례는 시민의 공감으로 그 가치를 드높일 수 있다. 제9대부터 가장 활발한 활동을 이어간 조례연구회의 위상을 잘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18명의 의원들과 함께 연구회 차원의 지속적인 시민공감민생조례 입안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제11대 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의 당찬 첫걸음을 알렸다.

미래세대연구회



인구감소 문제해결 위한 다각적인 연구활동 진행

전주시의회 미래세대연구회는 지난 9월부터 전주시 인구유출 상황과 저출생 문제 해결의 방안으로 세대별 상황진단 연구를 통한 시책 전반에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활동을 추진하고자 제1차 자체 간담회를 시작으로 다각적인 연구 활동을 진행해 왔다.

특히 지난 10월 23일 전주시 청년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초청강연회를 기획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의 현실적 주거대안 정책이 가능한지를 살피고, 현 전주시 임대주택 공급 시책에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 확장의 방향성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더불어 현 주거복지 측면에서 공적임대주택 공급 시책이라는 청년매입 임대 주택 사업 등 지속가능한 정책이 되는 측면과, 청년과 신혼부부를 포함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 사업의 대안의 시급성 등을 강조하며, 주거비 부담 경감 정책, 청년주거안정을 위한 사회적 책임 강화, 저렴한 공공임대주책 입주기회 확대, 지속적인 주거실태조사 등 청년계층을 포함한 세대별 주거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을 함께 모색하였다.

미래세대연구회 서난이 회장은 “계층별 주거빈곤 문제 개선 방안, 인구유출, 유입현황 분석,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현안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진단하며, 확장성 있는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모든 역량을 다하여 최선의 정책 제안이 이뤄지도록 12명의 회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제11대 전주시의회 미래세대연구회의 향후 활동에 각오를 다졌다.

생태교통연구회



사람중심의 생태 교통 활성 방안 연구에 중점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생태교통연구회(회장 김원주 의원)는 제11대 전주시의회 의원들이 환경보전과 시민복리를 위한 생태교통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 공유함으로써, 의회 차원의 유기적인 협력방안 및 정책 제안 마련 등의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연구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발족하였다.

생태교통과 관련한 지역현안에 대한 올바른 대안제시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시급한 생태교통분야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의회 스스로의 내부적 역량을 한 곳에 모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생태도시연구회는 지역 현안을 회원들과 공유하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매 월별 정례적 월례모임을 개최하여 연구활동 방향을 결정하고 대중교통,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보행환경개선 등을 위한 정책제언을 비롯하여 시민제안 발굴 등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회를 만들기로 다짐하였다.

생태교통연구회는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안전한 보행로 조성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통해 보행로 확대 및 제 기능 수행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통한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였다.

연구회 회장 김원주 의원은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처럼 전주의 교통 또한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변경되어야 하며, 그 첫 번째 과제가 인도 확보라며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의정포럼연구회



'저출생 대응 방안 모색' 위한 다각적인 논의

지난 9월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의정포럼 연구회(회장 이경신 의원)가 의원들간 자유로운 소통을 통한 연구의 장을 마련하고자 '저출생 대응 방안 모색'이라는 연구 주제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의정포럼 연구회는 지난 12월 7일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인 김나림 교수를 초청하여 지속되는 저출생 문제에 대한 진단과 전주시가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는 전주형 저출생 대책 다울마당의 운영 사례 및 타 지자체 저출생 대책 등에 대해 듣고, 회원들간 활발한 논의를 거친 후 전주형 저출생 극복 정책 등에 대해 논의하고 집행부에 전주시 실정을 고려한 관련 정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이경신 의원은 "전주시의 경우 전주시의 최근 3년간 출생아 수를 보면 2015년 5370명, 2016년 4797명, 2017년 4298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 3년 동안 1072명이 줄어 2015년 대비 약 20%가 감소하는 등 전주시 저출생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며 "전주시의 경우 지속되는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주시 실정에 맞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개발 · 시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영규 의원 (중앙, 완산, 중화산1·2동)



의정활동

전주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백영규 의원이 제35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주민의 주도적 참여와 혁신적 아이디어를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거점공간 기반을 조성하여 공공의 영역에서 해결하지 못한 지역의 문제를 주민들의 자유로운 참여 · 협력으로 해결하고 다양한 분야 간 밀도 높은 혁신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혁신 플랫폼으로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을 구축하기 위한 기반조성, 설치 · 운영, 지원 및 육성 등 제도적 기틀을 마련을 위한 전주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주민 중심의 소통협력공간 활성화와 지역사회 혁신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 및 인재양성 등 지역사회 혁신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의정활동

사랑과 나눔에 대한 이해와 관심으로 자원봉사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

백영규 의원이 지난 11월 30일 화산체육관에서 열린 제14회 전주시자원봉사결산대회에서 (사)전주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황의옥)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전주시 자원봉사센터는 평소 백 의원이 사랑과 나눔에 대한 이해와 깊은 관심으로 전주시 자원봉사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감사패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나누고 봉사하는 많은 후원자와 봉사자분들을 대신해 감사패를 받았다”며 “자원봉사의 역량강화와 활성화를 통해 전주시민 모두가 사랑을 나누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전주시의회 행정위원장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기동 의원 (중앙, 완산, 중화산1·2동)



5분 자유발언

지역 밀착형 시민교육으로 품격의 전주를 만들어가자!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라는 슬로건은 민선6기 그리고 민선 7기의 핵심 키워드다. 품격의 전주라는 가치를 어떻게 하면 우리 스스로가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가. 품격의 주체는 도시가 아닌 시민의 삶의 가치와 철학의 정립이며, 시민이 주도하는 문화, 여가, 복지 등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풍겨 나오는 선진 시민의식이다. 이러한 선진 시민의식은 다양한 시민교육 활성화로부터 시작 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시의 시민교육 전반의 거시적 정책 목표를 적극 설정하고 시민교육의 진흥 방안과 체계적인 운영 방식의 마련을 위한 노력이 현 시점에서 집중화되고 선도되어야 하며 시민교육 프로그램은 모든 시민을 위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전주시 35개동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한 지역밀착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교육 전담부서 신설, 총괄 조정 및 지원 예산의 확대 등 혁신적인 시정운영의 효율적 개편을 추진하고 시민교육이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법과 질서를 지키며 서로 협력하는 공동체의식 즉 선진시민의식을 갖춘 품격의 전주로 거듭나야 한다. 이제 품격의 전주는 우리 손에 달려 있다.



의정활동

"천만그루 가든시티 전주" 중화산2동 꽃두렁이 마을 공동체와 함께 출발!

이기동 의원이 지난 11월 28일 중화산2동 마을공동체 꽃두렁이 마을 회원 및 주민 30여명과 함께 화산상가 도로변과 관내 공원에 나무와 겨울꽃을 심었다. 이날 식재는 온두레 공동체로 선정된 꽃두렁이 마을 회원들과 상가주 등 주민들이 참여했으며 황금측백, 남천, 철쭉 등 사계절 아름다운 나무 650주와 겨울대표 꽃인 꽃배추, 백묘국 보리 500본이 식재됐다. 최근 전주시가 열섬 현상 등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발생 등 대기질 악화로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사업 참여 및 범시민 홍보를 위해 자발적인 참여가 활기를 띠었다.

송승용 의원 (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행정사무감사

상수도 누수요금 감면 및 노후급수설비 지원사업 시정요구!

송승용 의원이 전주시를 상대로 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수도 누수요금 감면 및 노후급수설비 지원사업의 시정을 요구했다.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수수료 및 사용료 감면) 제3항에서 옥내 누수의 감면서 월 평균 사용량의 3배 이상이면서 200톤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모순이라면서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불합리하기에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또한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급수 설비 개량 공사비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다며 소규모 공동주택 또한 현행 시행규칙의 다가구 주택으로 포함하여 지원범위를 확대 할 것을 요구했다.



의정활동

나눔과 베풂으로 따뜻한 겨울나기

송승용 의원이 지난 12월 8일 효사랑전주요양병원 임직원들이 모은 성금으로 전주시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할 연탄기부와 배달 봉사를 전개했다. 2018년 첫 한파가 몰아치는 가운데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나눔과 베풂으로 사랑과 봉사를 실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송 의원을 비롯해 40여명이 참여해 전주시 서서학동 에너지 소외계층 4가구에 직접 배달했다. 송 의원은 “우리 지역에는 아직도 복지사각지대에서 이웃의 따뜻한 손길을 절실히 기다리는 사회취약계층이 많이 있다”며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 시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특히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맞춤형 복지정책 실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양영환 의원 (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5분 자유발언

전주 최초 도심습지 지시제, 관리 부실로 수질 최악!

지시제는 전주 시내 소류지 중 가장 오래된 곳으로 한때 사라질 위기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 전주시가 함께 생태공원으로 되살려 2006년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전국 우수사례로 소개되었다. 그러나 현재 지시제는 풀이 우거지고, 땅과 펜스가 기울어져 시민들의 안전도 장담할 수 없다. 유입수가 극히 적어 물 순환이 되지 않으며 쓰레기는 쌓여있고 정수시설은 고장이 났다. 또한 공원 주변 수종은 봄철 꽃가루가 날리는 나무들이 식재되어 지역 주민들은 꽃가루와 미세먼지, 황사의 삼중고에 시달린다. 조성 당시부터 현재까지 수억 원을 들여 조성·관리하고 있음에도 땜질식 처방으로 문제는 더 악화되고 있다. 전주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좀 더 본질을 들여다보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시장께서 지난 6.13 선거 당시 지시제 등 6대 호반 명품화 사업을 약속하였으나 시민들은 겉만 번지르르한 공원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품화 사업의 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시민들의 삶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의정활동

평화2동 사랑愛 김장김치 나눔 행사

양영환 의원이 지난 11월 20일 동절기를 맞아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사랑愛 김장김치'나눔 행사에 참여했다. '사랑愛 김장김치'사업은 평화2동 주민센터 동네복지팀 특수시책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 함께 제철에 나는 신선한 재료로 정성 가득한 손맛이 더해진 김장김치를 담가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 관내 취약계층 120세대를 직접 가정방문, 전달했다.

이남숙 의원 (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5분 자유발언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중증장애인 일자리 정책 촉구!

최근 정부는 '장애인 평생 복지 종합 대책' 발표를 통해 포용적 성장 복지,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강조했다. 전주시 역시 국가의 복지정책 기조에 발맞춰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복지정책체계와 지역사회 통합형 일자리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장애인 고용을 실현해야 한다. 즉, 장애인 고용을 위한 지역사회 인프라 활용과 민관협력, 지역에 있는 중증장애인들의 특성과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직업훈련과 실습 기회 제공, 중증장애인 적합 직무 개발 및 직무 배치를 통해 장애인 고용을 위한 수익 창출 및 지속적인 일자리 마련과 안정적 고용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그 시작으로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진정한 자립을 이루고 시설에서 마을로, 일하며 세금 내는 국민으로 성장하여 실질적인 사회참여와 사회통합, 진정한 사회적 공동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형 중증장애인 일자리 프로젝트'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인 노력을 바란다. 아울러 평화동 지역의 청소년들이 전주시 청소년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기에 청소년의 성장을 돕고, 문화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평화동 청소년 센터의 건립을 강력히 촉구한다.



의정활동

전주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다함께 돌봄'구축 정책토론회

이남숙의원이 지난 11월 8일 전주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핵심사항인 '지역이 함께 돌보는 돌봄 전주'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 '돌봄 지역에서 함께 고민하다'에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주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가 주최로 전북 지역 돌봄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의원이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섰다. 이의원은 11월 경기도 오산시 '초등 온종일 돌봄 지원조례'를 예로 들어 전주시의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역 돌봄 정책 입법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정책추진을 하고 그 내용에는 아동의 4대권리(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원주 의원 (풍남, 노송, 인후3동)



5분 자유발언

전주시 남북교류협력 중장기 로드맵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무드에 발맞춰, 나아가 평화 통일시대의 도래에 대비하여 전주시가 적극적이고 중장기적인 남북교류협력 플랜을 세우고, 관련 사업들을 집중 발굴 · 추진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지방자치단체의 남북 교역 당사자 삭제 조항과 관련하여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승인 요건 완화 및 기금 지원 등 교류의 상호 주체로 명시한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가운데, 통일부 역시 지자체의 대북 협력 사업에 대한 자율성과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발표도 있었다. 우리시 역시 지난 3월 「전주시 남북 교류협력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관련 기금 및 위원회 조항 등을 보완하고, 실무기획단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실질적인 남북교류협력 업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에 전주시가 추진해야 할 남북교류협력 시책의 방향을 제언한다. 첫째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둘째 전주시의 경제 · 사회적 발전측면에서 사업의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는 분야별 우선순위 설정, 셋째 전라북도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넷째 장기적이고 다각도적인 자매결연사업 추진으로 종합적인 전주형 남북교류협력 중장기 로드맵 설정을 촉구한다.



의정활동

생태도시 전주 5년을 짚어본다 인터뷰

전주시의회 생태교통연구회장인 김원주 의원이 지난 11월 7일 생태도시 전주의 5년에 대한 인터뷰에서 여러 견해를 밝혔다. “사람들은 좀 급하게 결과를 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로 가져갈 일에서 당장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하니 답답한 마음이 들 수 있을 것이다. 지역구에서의 주차민원도 그렇다. 자기 집 바로 앞의 일에는 매우 적극적이지만 그게 골목이 되면 또 달라지는 경향도 있는데 개개인의 민원을 모두 해결하는 건 불가능할 테고, 쌀에서 가려내듯 잘 다듬어 가는 게 쉽지는 않지만 우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도심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해 전에도 제안했으나, 담장을 허물고 주차공간으로 내놓는 세대에 대한 비용 지원과 조경공사로 돌려주는 등의 방안을 통해 1 주차장 만들기처럼 시민들의 이익을 공익으로 만들어내는 방안을 잘 만들어보면 좋겠다”는 제안을 덧붙였다.

김윤철 의원 (풍남, 노송, 인후3동)



시정질문

노송동 복합문화스포츠센터 건립

지역사회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책무는 행정에 마땅히 귀속되는 것 임에도 불구하고 노송동 문화촌 지역의 경우를 보면, 전주시의 거창한 구호가 전혀 무색한 실정으로, 보살핌과 배려는 뒷전이다. 노송동 인봉스포츠센터는 40년된 무허가 건축물로 수리하고 리모델링하는 것 보다는 노후된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목적으로 특별교부세 5억을 중앙으로부터 교부 받았다. 공원지역 해지절차 및 도시계획 변경 등 선결과제가 있었지만 해당 절차를 충실히 밟아간다는 전제하에 특별교부세를 배정하였고 관계부서에서도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복한 생활공간으로 제공하고자 2018년 초부터 절차이행을 서두르기로 2회에 걸쳐 토의하고 협의를 마쳤다. 행정에서는 특별교부세 5억이 확정되었기에 추경예산에서 5억을 편성했지만 무려 6개월 동안 아무런 절차이행에 관한 준비도 실행도 없이 세월을 허송하여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다. 향후 노송동 스포츠센터 건립에 관한 절차이행을 어떻게 마치고 어떤 방법으로 상처받은 주민들의 심정을 위로하고, 어떤 방식으로 과업 수행을 마무리 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촉구한다.



5분 자유발언

지역인재유출을 막고 전주시 인구 늘리기에 역량을 총동원해야!

2017년 전주시 전체인구는 648,964명으로 2016년보다 2,708명 감소하였고 2017년 전주시 청년 인구는 128,066명으로 전년도 보다 1,983명 줄었다. 청년 인구는 한 사회의 경제 및 문화를 이끌어 가는 핵심동력으로 지역사회를 유지 ·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연령층임을 재인식하고 우리 지역의 인재유출을 막기 위한 특화된 정책과 전주시 인구 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한다. 이에 우리 지역의 인재유출을 막고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제안한다. 첫째 인구문제에 능동적인 대응, 둘째 교육에 집중, 셋째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에 역량 집중, 넷째 새로운 인구 유입을 위한 정주 환경개선에 주력, 다섯째 획기적인 출생정책과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정부지원금만으로 해결하지 말고 전주형 종합정책으로 고용, 주거, 교육, 문화, 일과 가정 양립, 인식개선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만 한다. 주민의 일상생활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밀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그만큼 주민들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 혁신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때 인구증가의 실효성을 갖게 될 것이다.

최용철 의원 (풍남, 노송, 인후3동)



5분 자유발언

전주한옥마을의 미래, 재조명이 필요하다!

전주다운 한옥마을, 제2의 한옥마을의 도약을 위해 전주시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말하고자 한다. 그동안 전주시의회에서 체류형 사계절 관광지 육성, 민간주도형 문화콘텐츠 사업 추진, 한옥마을과 아중호수~덕진연못을 잇는 야간경관 명소를 조성 등 주민의 염원을 담은 주장을 해왔지만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제2의 한옥마을의 발전을 위해 첫째 전주한옥마을 내 오목대를 중심으로 역사테마공원(일명 태조 이성계 공원) 조성, 둘째 후백제 역사탐방길, 기린 테마파크 조성, 셋째 다양하고 매력적인 이야기와 콘텐츠로 체류형 프로그램 재구성을 제안한다. 더불어 행정과 주민, 전문가들의 협의를 통해 발전방향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공통의 미래상을 만들어 내기 위한 합의와 공감대 확산, 한옥생활에 대한 재인식과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행정이 함께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문화특별시로 재조명되고 있는 지금, 한옥마을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고급화하여 여행자의 수요와 전통문화요구를 조화롭게 수용하고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해 한층 더 성장한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주시 행정의 능동적인 대응을 기대한다.



의정활동

중노송동 낙수지역아동센터에 'JB희망의 공부방 제75호' 오픈

최용철 의원이 지난 11월 6일 중노송동 낙수지역아동센터에서 'JB희망의 공부방 제75호' 오픈식을 함께했다. 전북은행은 1004데이인 10월4일 전주풍남초등학교에서 열린 '제8회 천년전주 천년사랑 축제'에서 공부방 지원을 약속하고, 내부환경 개선이 필요한 낙수지역아동센터를 선정하여 아동들에게 적합한 책상과 의자, 책장, 사물함 등을 지원하고 LED전등 교체로 밝고 쾌적한 환경에서 마음껏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공부방 시설 정비를 했다. 특히 전북은행 직원들이 아동들의 희망멘토가 되어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교류를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최 의원은 "지역은행의 도움으로 지역의 아동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공부방이 조성되어 정말 기쁘다"며 "전주시의회 의원으로써 우리의 미래인 지역 아동들을 위한 교육 · 문화 정책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선희 의원 (서신동)



5분 자유발언

전주시는 공원의 퍼걸러 차양시설에 대한 시대와 방향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구축하라!

전주시 공원에 설치된 모정 및 퍼걸러의 지붕확장 현황을 보면 처음 설계할 당시 사용자의 연령, 활용형태, 주변경관과의 조화는 고려하지 않은 채 사용하는 민원인들의 필요에 의해 확장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차양시설이 확장된 휴게시설을 보면 처음 설치된 지붕의 경사면과 달리 거의 평면에 가깝게 되어 있어 떨어진 나뭇가지가 쌓이고 물이 고여 부패하고, 소재 또한 원형의 소재와 동떨어져 주민들에게 높은 단계의 문화활동을 저해하며, 지붕을 받치는 기둥이 주변통행과 경관을 해치고 있다. 어떤 공원은 휴게시설을 비닐포장으로 둘러 싼 경우도 있다. 그러나 서신길공원의 모형파걸러의 보수 시공 예를보면 우리가 필요를 어떻게 디자인으로 연결시킬 것인지 알 수 있다. 원형을 해치지 않고 보완하면서 주민들에게는 세심한 설계를 통한 문화를 체험하고 다시 그 문화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새로운 전통과 문화를 창조해야 할 전주시의 방향을 고려할 때 공원에 설치되는 작은 시설까지 전주시의 방향과 가이드라인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하루빨리 그 가이드라인을 정립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의정활동

2018 전주천 섶다리 축제

서신골 문화 · 복지 어울림(위원장 한병훈)에서는 지난 10월 13일 전주천과 삼천이 합쳐지는 가련교 하부 여울목에서 지역주민 등 1,000여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2018 전주천 섶다리축제'를 개최했다. 2008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열한 번째를 맞이한 전주천 섶다리 축제는 서신동 10개 자생단체 대표와 주민들로 구성된 서신골 문화 · 복지어울림에서 주최하며, 섶다리 개통식과 먹거리 나눔행사를 비롯하여 다양한 문화행사 및 전통놀이 체험행사가 함께 열렸다. 전통문화 재현과 섶다리를 통한 이웃 간의 소통을 목적으로 시작된 '2018 전주천 섶다리 축제'에서는 풍물패와 함께하는 섶다리 개통식을 시작으로 서신동민들과 함께 고사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서로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뜻깊은 장을 마련하였다. 전주천 섶다리는 옛 문화를 재현하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선조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어른들에게는 고향의 풍경과 정취를 느낄 수 있게 하는 전주천의 으뜸 명소가 되고 있다.

정섬길 의원 (서신동)



의정활동

전주천 여울목 섶다리 개통 및 제10회 서신동민의 날 행사

정섬길 의원이 지난 10월 13일 서신동과 덕진동을 연결하는 전주천 여울목 섶다리 개통식을 함께 했다. 이날 섶다리 개통식은 제10회 서신동민의 날 행사 식전 행사로 전주천과 삼천이 합쳐지는 가련교 하부 여울목에서 열렸으며 주민 1,0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섶다리 축제는 옛 문화를 재현해 아이들에게 선조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어른들에게는 고향의 향수를 느낄 수 있어 더욱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여울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제10회 서신동 동민의 날 행사에는 각 자생단체 회원들과 주민 2,000여 명이 사랑과 온정이 넘치는 이웃 간 화합에 큰 뜻을 두고 참여했다. 또한 효행상, 공익상, 선행상, 애향상 등 모범동민의 장을 수여하며 뜻 깊은 주민화합의 장을 이루었다.



의정활동

서신골 별별마켓 성료

정섬길 의원이 지난 11월 11일 지역상인과 시민들의 소통공간, 아이들의 공유 · 나눔 경제 놀이터인 '서신동 별별마켓' 행사에 참여했다. 별별마켓은 지난 4월과 10월에 이어 11월 쌀쌀해진 날씨에도 지역민들의 뜨거운 사랑과 열정적인 참여로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행사는 폴리마켓 33여팀, 프리마켓 26팀, 8개의 체험프로그램과 3개의공연팀 등 총 70여팀이 참여하여 회를 거듭할수록 지역민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있다. 정 의원은 "생활문화형 마켓의 컨셉을 가진 별별마켓의 성공비결은 교육 · 문화 · 소통의 공간"이라며 "참여자 모두가 함께 어울리며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문화공연을 향유할 수 있는 전주시민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고 말했다.

고미희 의원 (효자4 · 5동)



5분 자유발언

효자4동 주민복합복지센터 건립 촉구!

지난 7월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기존 효자4동주민센터이 효자5동주민센터로 변경되고, 효자4동과 혁신동 주민센터는 현재 임시청사가 개청돼 행정업무를 수행 중에 있지만 주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많은 불편이 따르고 있다. 혁신동의 경우 완산구 중동 일원에 주민센터와 주민 문화 활용공간이 융합된 혁신동 주민지원센터를 2020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계획 중인 반면 효자4동주민센터의 경우 대상 부지조차 선정되지 못해 지역주민들에게 큰 상실감을 주고 있다. 효자4동 지역의 경우 같은 신도시 임에도 행정구역이 개편되기 전까지 인구 과밀화로 인해 행정서비스 제공에도 차별을 받아왔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노인복지관 및 아동 · 청소년센터 등 복지시설 역시 열악한 상황이다. 따라서 효자4동주민센터 신축 시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 시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센터 및 노인복지사업에 시너지 효과를 더할 수 있는 시니어클럽, 아동 · 청소년 센터 등이 함께 건립될 수 있는 '효자4동 주민복합복지센터' 건립을 촉구한다.



5분 자유발언

보행자 안전 우선 인도 확충 촉구한다!

전주시는 걷고싶은거리 사업을 통해 걷는 도시, 걷고 싶은 도시 이미지를 내세운 것이 15년 전이지만 고사동 일대 걷고 싶은 거리를 보면 진입차량과 불법 주정차로 특화 거리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이다. 또한 2017년부터 걷고 싶은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도로비우기 및 인도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보행로는 불법주차와 불법 적치물, 광고물들에 쌓여 보행자의 안전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최근 서부신시가지의 녹도정비사업은 동시다발적 공사 진행으로 인근 시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이러한 사업보다 시급한 것은 보행로와 차로가 구별되지 않은 위험한 도로가 곳곳에 있다. 주로 2차로 또는 주택가 이면도로이며, 불법주차와 불법 적치물로 어린이와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의 사고위험이 높은 곳이다. 걷고싶은 거리를 특화하여 관광자원화하고 명품 걷고싶은 인도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는 것, 그래서 정말 안전한 도시 전주를 만드는 것이다. 어디든 걷고싶은 곳,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곳, 주민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전주를 만들어 시민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

박형배 의원 (효자4·5동)



5분 자유발언

관내 문화 소외지역 전수조사 및 실질적인 지원 절실하다!

시민들의 문화적 요구를 일정 정도 담당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각 동에 설치 · 적용 및 운영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문화 향유 기능 지원 방식이다. 하지만 지역간 개발 규모나, 방식 등에 따라 문화 소외지역이 발생하고 전주권 전역을 살펴보면 문화 양극화가 드러나고 있다. 형평성이 없는 행정, 즉 어떠한 원칙과 기준 없는 문화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첫째, 전주시 생활문화시설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서곡문화관 사례에 규합된 시설을 점검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해야한다. 둘째, 혁신도시 문화공간을 운영했던 방식을 일괄 도입하여 직접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한다. 문화특별시 전주의 큰 그림은 균등한 지원이 전제된 지역생활문화 활성화가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다. 모든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권리 신장이 그 기본 골격으로 갖춰질 때 비로소 문화도시 전주의 위상정립이 가능하기에, 더 이상의 문화소외지역 및 소외계층이 없도록, 이용자의 호주머니까지 살뜰히 챙기는 민생시책들이 하루빨리 점검 · 보완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의정활동

전주국제영화제의 지속가능한 성장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지난 10월 23일 전주국제영화제의 지속가능한 성장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박형배 문화경제위원장이 패널로 참석하여 "영화제가 영화인과 마니아를 중심으로 성장한 측면이 있다"며 "지난해 영화제 전주시네마프로젝트(JCP) 작품인 〈노무현입니다〉를 노송광장에서 무료 상영했을 때 수많은 시민이 운집했다. 이에 20주년은 시민에게 돌려주는 영화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박 위원장은 JCP 제작과 관련해 '시민 크라우드 펀딩'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크라우드 펀딩에 의한 제작 지원으로 영화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참여도를 높이자는 의도다. 또한 예산확보 방안으로 도비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전주만의 영화제가 아니라 전라북도 시 · 군단위와 함께 하는 20회 영화제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숙 의원 (효자4 · 5동)



시정질문

전주효천지구 행정구역 단일화 시급하다!

최근 효천지구 A4블럭(대방아파트)의 행정구역 재조정 움직임이 있어 문제를 제기한다. 전주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4개 블럭으로 2016년 당시 LH와 전주시의 요청으로 효천지구 행정구역을 해당 지역구의원들과 조정하여 A1블럭(우미1차), A2블럭(우미2차), A4블럭(대방)은 효자4동, A3블럭(LH임대)과 단독주택부지는 삼천3동으로 협의 결정했다. 최근 LH임대아파트 분양자들이 행정구역 재조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와 관련 전주시는 A4블럭(대방아파트) 행정구역 재조정을 고려, 올 연말쯤 입주예정자들의 여론 수렴 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7월1일 효자4동은 효천지구 인구 1만명을 고려 3만7천명으로 분동 결정했고 이와 같은 인구조정안으로 분동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계획을 따라 행정구역이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A4블럭(대방)을 분양받은 주민들도 당연히 행정구역이 효자4동으로 알고 계약을 맺은 것이며 행정구역을 삼천3동으로 변경 조정한다면 A4블럭 대방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큰 동요가 예상된다. 전주 효천지구 행정구역단일화, 전주 혁신도시를 반면교사로 삼아 진지한 고민을 요구한다.



5분 자유발언

새만금국제공항 신속 건립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돌입! 전주시민 동참을

지난 8월 발표된 2019년 정부예산안에 새만금국제공항 관련예산 25억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이유로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2023년 세계잼버리를 앞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 주고 있다.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김현미장관은 내년도 국가예산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관련 기본계획수립 용역비(25억 원)가 반영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반영을 못한 것"이라고 답했다. 10여 년 전 지난 정부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한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군산공항 확장부지가 포함되어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 되었음에도 국토부에서는 또다시 예타를 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사항일 뿐 만 아니라 200만 도민의 명운과 2023세계 잼버리 대회 성패가 걸린 문제에 대해 청원하고, 그 답을 분명히 들어야 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운동 전개를 전주시민과 전북도민께 제안 한다. 정부를 믿고 그저 기다리기에는 시간적 절박감에 청와대 국민청원 을 통해 새만금국제공항 신속한 건립촉구와 새만금공항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분명한 답을 들어야 할 것이다.

김은영 의원 (효자1·2·3동)



시정질문

빈집관련 종합대책수립 시급하다!

주변에 빈집들이 늘고 있다. 대부분은 사람 살기에는 너무 낡고 을씨년스럽다 보니 인적이 뜸해져 범죄에 악용되기도 쉽고 화재 등의 안전에도 취약하다. 문제는 빈집이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빈집 증가에 따른 위기는 비단 농촌지역과 서울, 부산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전주시가 해결해야 할 주요 현안이 되고 있다. 최근 수년간 전주시 관내 빈집의 수가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5년 '전주시 빈집 정비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빈집에 대한 정비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늘어나는 빈집에 비해 정비가 이루어지는 빈집은 일부에 불과하다. 지난 10년간 115동의 빈집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졌고 소요예산은 약 12억원으로 연평균 1억2천 정도에 불과하다. 작년에만 68채의 빈집이 증가했지만 정비예산은 역부족인 것이다. 우선 빈집활용을 위해 체계적 빈집 조사가 우선되어야 전주시 지역 특성에 맞춘 다양한 형태의 빈집활용이 가능할 것이기에 전주시 현황에 맞춘 활용을 위해서는 그에 맞는 조사항목을 재구축하여 빈집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의정활동

효자2동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협의회 경로위안잔치

김은영 의원이 지난 7월 5일 효자2동 한마음 경로위안잔치에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효자2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새마을 협의회가 함께 지역내 어르신 200여명을 모시고 곰탕을 대접하며 훈훈함을 더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새마을협의회는 어르신들께 따뜻한 건강 보양식을 대접하면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식사 후에는 안부를 묻고 함께 대화하는 소통의 시간을 통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이경신 의원 (효자1·2·3동)



시정질문

전주시 출생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 문제로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있다. 전주시 역시 예외는 아니다. 2016년 전주시 출생아 수는 4,797명으로 2015년 대비 573명이 감소했다.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고자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둘째아 이상을 대상으로 출생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유독 전주시만 둘째아에게만 지원하고 있다. 더욱이 지원 조건마저 까다롭다.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중위소득 70% 이하의 가구만 지원받을 수 있다. 시장은 소득과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출생축하금을 확대하는 방안과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5분 자유발언

실질적 무상보육 실현위한 민간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지원 절실!

지난해 모 기관에서 조사한 '미혼남녀의 출산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출산에 도움되는 정책으로 남녀 모두 보육 지원을 1위로 꼽았다. 즉, 아이를 낳는 것이 문제가 아닌 아이 출생 이후 안정적인 보육환경이 얼마나 잘 조성되어 있냐가 출생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는 뜻이다.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정부는 2012년 전면 무상보육 실시를 발표하였으나 이는 국 · 공립, 법인, 직장어린이집 등에만 적용되어, 민간 · 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의 경우 여전히 일부 유상보육 즉, 차액 보육료가 발생하고 있어 이는 반쪽짜리 무상보육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일선 어린이집의 운영난이나 어린이집 현원의 급격한 감소는 개별 어린이집의 존폐문제를 넘어 결국 영유아와 학부모들에게 양질의 보육 및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그 시작이 바로 평등한 교육권을 실현할 수 있는 민간 · 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이다. 따라서 모든 아동이 차별 없는 보육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줄 것을 촉구한다.

김동헌 의원 (삼천1·2·3동)



5분 자유발언

전주형 공공행복 정책의 도입을 촉구한다!

세계 여러 국가와 지방정부가 행복이라는 개념을 개인의 가치에서 적극적인 공공정책 측면으로 접근하며, 많은 지자체에서도 행복정책을 적극 도입하여 이를 제도화하고 구체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 전주시가 그 중심에 있다는 점이 매우 희망적이고 고무적이다. 민선7기 전주시는 사람의 도시 전주의 완결판을 시민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내려는 의지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전주형 공공행복 정책의 실질적인 도입을 위한 공공행복의 실현을 위한 주요시책 및 정책개발 등 전략적 대응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제도적 기반이 될 전주시 행복 조례를 제정하여 기본계획 수립, 행복지수 · 지표 개발 사업 추진, 시정 전반의 주요 시책들의 피드백이 가능한 행복영향평가 등의 방식들이 구체화 되어야 한다. 개인의 행복을 혼자 이뤄내기는 매우 어렵기에 개인의 행복누적 효과가 사회적 행복 누적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주형 공공행복 정책의 섬세한 시도와 노력을 기울일 시점이 바로 오늘이라고 확신하며, 전주시가 앞으로 전주형 공공행복 정책의 적극적인 도입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행정사무감사

문화의 집 환경개선 시급하다

김동헌 의원이 전주시를 상대로 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의 집 환경개선이 시급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주지역 문화의 집 근무자의 인건비가 가이드라인도 없이 적은 인건비와 열악한 근무 환경 등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개선점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감당부서에서 먼저 신경써야 하고, 인건비 문제는 일괄 적용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적정임금 지급이 가능토록 검토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그는 “문화의집에 대한 평가가 지난해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진행되면서, 신규 수탁기관이 이전 수탁기관의 성과를 기준으로 평가 받는 불합리가 발생한다면서 신규 수탁기관의 당해연도 평가를 면제하거나 평가 기준을 변경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승섭 의원 (삼천1·2·3동)



5분 자유발언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도시공원 관리시책도 함께 보완되어야 한다!

도시공원은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이며, 시민의 보편적 환경권을 보장하는 도심 공간시설이다. 하지만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 실효에 따라 일제히 상실 될 위기가 우리 앞에 직면해 있다. 도시공원이 과거부터 그리고 앞으로 도시계획 시설의 영역에서 매우 큰 가치를 차지할 것이 자명함에 따라, 보다 현실적인 접근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도시의 지속가능성 저하가 예상됨은 엄연한 현실임에 따라 최대한 집중적이고 최소한의 공원 소멸 방지 전략에 집중해야한다. 이와 더불어 일몰제 이후를 대비한 실효성 있는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시책을 시급히 점검 · 도입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제는 도시공원이 환경생태 회복뿐만 아니라 환경복지,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도시공원 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우선 2020년 일몰제에 대비한 순차적 공원서비스의 형평성을 고려한 지역별 우선순위에 근거한 리모델링 지원사업 추진을 요청한다. 다음으로 관내 도시공원 시설물 등 관련 유지관리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시정질문

전주시 프로스포츠 산업 지원 · 육성에 관심가져야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스포츠 마케팅 산업에 주목하고 있다. 스포츠 이벤트 개최 등 스포츠를 매개로 한 다양한 산업은 지역 내 낙후된 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고 활성화 효과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현대모터스와 전주 월드컵경기장은 전주시민의 자긍심을 드높이는 구단이며, 축구도시 전주의 심장터로 이어왔다. 전주시는 전북현대모터스와 현 전주시의 연고구단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드론 축구는 전주가 세계 속에 종주도시로 펼쳐낼 충분한 잠재력이 있는 미래형 스포츠산업이다. 특히 전북현대와 협업하는 다양한 홍보콘텐츠를 개발 지원하는 방안도 충분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축구라는 프로스포츠의 인프라를 지역이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일본, 중국, 동아시아권을 겨냥한 최고의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주 월드컵경기장은 이제 시설 노후화라는 말들로 리모델링 등 재투자 시설로 관리되는 체육시설 대상이 되었으며, 적자 보전에 대한 고민 역시 앞으로도 심도 있게 고민 되어야 할 시점이다.

김현덕 의원 (삼천1·2·3동)



5분 자유발언

전주형 농민수당 도입하자!

농업은 생명이자 미래다. 농업과 농촌은 식량안보 및 경제적 기능을 비롯해 생태환경보전, 지역사회유지, 전통문화계승 등 그 가치와 역할에 있어 공익적 기능이 세계적으로 폭넓게 인정되고 있으며, 최근 농촌진흥청은 우리 농업이 연간 86조원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연구 발표한 바 있다. 농민들의 삶의 터전인 농촌공동체 자체가 존재함으로 해서 발생하는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민수당의 개념을 농민에 대한 국가의 소득지원 일환이 아닌 생산 활동을 통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해내는 농민이 국가와 사회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전주시도 농민수당 도입과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 전주지역에 맞는 맞춤형 농민시책으로 농민수당 도입계획안 마련과 조례 제정 등 농민들의 참여와 다양한 의견을 모아 필요한 예산확보와 농민수당이 실현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농민수당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추세이다.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지켜내고,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생산주체가 대접받을 수 있도록 농민수당이 중소영세농의 생존권 보장차원에서 우선 도입되어야 할 정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의정활동

전주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김현덕 의원이 제35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전주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본 조례안은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우리 지역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주요내용은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주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그 유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하여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미수습 지역 유해 발굴 및 진상조사, 평화 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위령탑 및 평화공원 조성사업,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김남규 의원 (송천1·2동)



시정질문

덕진공원 대표 관광지 활성화방안

이제 통일은 멀지 않은 장래의 현실문제로 다가오고 있으며 이제 각종 통일 준비 현안들을 진중하게 고민해야 한다. 무엇보다 전주시 차원의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전주시는 평화통일의 기조를 일정 부분 정책화하는 선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정치 편향의 측면이 아닌 평화통일 환경 및 통일 의식의 기본 원칙과 추진방향을 선정하고, 보편적인 평화통일 교육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 둘째, 미래지향적인 세대 통합형 통일교육 체계를 준비해야 한다. 관련 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커리큘럼 등 연구 개발과 동시에 학생 및 젊은 층 대상의 통일교육 사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 셋째,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등이 필요하다.



5분 자유발언

전주농산물 도매시장은 존치되어야 한다.

덕진공원 대표 관광지 사업 및 예산집행의 경우 전통문화공연과 청사초롱 이벤트 등 전반적인 사업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한다. 또한 덕진공원 전통체험 및 문화공연은 지역의 예술단체 등이 참여하고 덕진공원을 찾는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고자 문화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향후 추진되는 콘텐츠 사업에 대해 시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되길 바란다. 아울러 덕진공원 활성화를 위한 전주시 소관부서 및 시설관리공단 간의 각 부서간 협업 및 네트워크 구축으로 유기적 공조체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바란다.

김윤권 의원 (송천1·2동)



행정사무감사

수돗물 관리 강화와 소각시설 현황 공개해야

김윤권 의원이 전주시를 상대로 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불편사항의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수돗물 음수기의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수돗물 홍보를 위해 전주시청사와 각 부서에 수돗물 음수기를 설치했는데 사용이 저조함은 물론 시의회 1층 의사과에 설치되었던 음수기의 경우 녹물로 인해 사용이 중지되었다면서 대책을 물었다. 이어 그는 이런 상황에서도 음수기 수질검사 성적서를 보면 대부분 검사결과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온다면서 수질관리 대책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팔복동 산업단지 소각시설들의 유해물질 배출이 기준에 적합하다면 주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유해물질 배출 현황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며 소각시설에 대해 주민들이 참여한 유해물질 배출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의정활동

송천2동주민센터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나눔 문화봉사

김윤권 의원이 지난 9월 15일 민속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송천2동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 더수타예술단, 대한적십자사솔잎봉사회 등과 함께 사랑의 나눔 문화봉사에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송천2동 어르신들과 전미동 어르신들을 모시고 풍성하고 풍요로운 한가위가 되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진행됐다.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나눔 문화봉사는 짜장면과 함께 문화 재능기부공연 등을 관람하며 송천2동과 전미동 어르신들과 소통하며 흥겨움으로 함께했다. 김 의원은 "웃어른에 대한 공경과 몸으로 실천하는 나눔 문화를 함께 할 수 있어 뿌듯하다"며 "시민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전주시를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진옥 의원 (송천1·2동)



5분 자유발언

전주시 미세먼지, 교통문제 해결위해 자동차를 줄여야 합니다!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 미세먼지로 인한 불안과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전주시에서 미세먼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건설기계 및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친환경차 보급 등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대책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가 없다. 전주시 자동차 등록 대수 303,580대는 인구 약 2명당 1대, 1세대당 1.2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전주시 대책과 함께 근본적으로 자동차 보유 대수를 줄이고, 자동차 운행을 줄여야만 미세먼지문제와 교통체증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수많은 자동차가 운행하는데 전주시를 걷고 싶은 도시로 만들고,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자동차와 자전거와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 교통을 실현할 수 있겠는가? 전주시가 진정으로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미세먼지문제와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원한다면 일상적인 대책수립에 머무르지 말고 자동차 수를 줄이고, 자동차 운행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대책수립도 중요하지만 먼저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당부한다.



의정활동

전주시민 68명 빚독촉, 채권추심으로부터 해방

전주시는 종교단체의 후원금으로 사들인 부실채권을 소각, 시민 68명에게 삶의 희망을 선사했다. 지난 11월 8일 전주시는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연장에서 김승수 시장과 박병술 전주시의회의장, 김진옥 도시건설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개막행사에서 부실채권 소각 행사를 가졌다. 이날 소각행사에서는 시가 종교계에서 후원한 1,400만원으로 전북은행의 도움을 받아 매입한 총 9억500만원 상당의 부실채권을 소각했다. 소각된 채권은 전북은행이 보유한 신용채권 중 연체기간이 5년 이상, 대출금액 1000만원 미만인 부실채권으로 총 68명의 시민이 빚의 굴레와 채권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강승원 의원 (덕진, 팔복, 조촌, 동산, 혁신동)



5분 자유발언

시민안전을 위한 「시민안전보험」 도입하라!

전주시는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국제안전도시 공인선포식을 가졌다. 최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다 경제적 여건 때문에 개인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구조가 복잡해지고 사고 및 범죄 발생의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여 사회적 손실이나 피해지역 구성원은 물론 자치단체가 사고 범죄 등 피해를 당했을 때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일은 당연한 제도적 장치로 자치단체장은 시민들을 보호할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전주시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직면하는 여러 위험요소로부터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시민안전보험 도입을 제안하오니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제정부터 예산수립까지 전주실정에 맞는 보장항목 설정 등 세심한 검토과정을 거쳐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은 우리 전주시의 안전과 직결되고 인구가 바로 자산이 되는 현실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 시민모두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각자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 인프라 구축에 더욱 힘써 주길 바란다.



의정활동

우수통장 산업시찰 예산 및 참여 확대

강승원 의원이 지난 제35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며 우수통장 산업시찰 사업의 예산 증액 및 참여 확대를 주문했다. 강 의원은 "오늘의 전주시가 있기까지 헌신하신 1,300여명의 통장들의 노력에 보답하고 사기진작을 위한 우수통장 산업시찰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며 "더 많은 인원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강 의원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전주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행정과 시민의 가교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통장들에게 많은 관심과 지원을 통해 더욱 자부심을 갖고 활발하게 활동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상준 의원 (덕진, 팔복, 조촌, 동산, 혁신동)



의정활동

조촌 · 동산 작은나눔회, 동산동에 백미 40포 기탁

조촌 · 동산 작은 나눔회에서 조촌동 관내 저소득 가정에 백미(10㎏) 40포를 전달했다. 작은 나눔회는 2013년 조촌동과 동산동 주민들로 결성되어 주민의 화합을 통해 조촌동과 동산동의 지역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단체로 매년 저소득층 학생 2명을 선발하여 120만원 씩 총 24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에게 사랑의 쌀을 전달하며 따뜻한 이웃사랑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이 날 기탁식에 참여한 송상준 의원은 지역 주민이 주축이 되어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작은 나눔회의 활약을 격려하고 "작은 사랑이 큰 희망의 씨앗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꾸준한 봉사와 나눔을 위해 많은 주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의정활동

'팔복예술공장' 예술의 봄 싹 틔우다

송상준 의원이 지난 3월 23일 전주시와 (사)전주문화재단이 주최하는 팔복예술공장 개관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산업단지 한복판에 예술과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하는 문화공간이 문을 열었다. 버려진 공간과 사물을 재발견하고 재창조하기 시작한 예술가들의 손길로 전환기를 맞고 있는 팔복동. 수많은 공장의 분진과 먼지, 소음 때문에 고통스러운 삶을 호소했던 주민들 또한 이러한 변화를 호기심 가득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팔복예술공장은 전주시가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지원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국비 25억원을 포함한 총 50억원을 들여 조성한 공간이다. 카세트테이프를 생산하다가 문을 닫고 20여년간 방치돼 있었던 공장이 예술의 힘을 통해 새롭게 변화한 것이다. 'Transform : 전환하다'를 주제로 한 개관특별전에서는 팔복예술공장 레지던시 참여작가를 포함해 총 26팀(명)의 작품이 공개됐다. 드넓은 부지와 공간에서는 구석구석 이색적인 작품들과 마주할 수 있다. 전시는 '다시 생각하다', '재창조하다', '재발견하다'. '혁신하다'등 4개의 섹션으로 구성돼 관객과 소통했다. 팔복예술공장의 전시관람은 오전 10시~오후 6시, 토요일은 오후 9시까지 가능하다.

송영진 의원 (덕진, 팔복, 조촌, 동산, 혁신동)



의정활동

ICT융합산업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감사패 수상

송영진 의원이 지난 11월 27일 ICT융합발전포럼(회장 유철중 전북대학교 교수)으로 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전북ICT융합발전포럼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날 행사에서 송 의원은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전북지역 ICT융합산업발전과 기업성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송영진 의원은 "감사패의 의미는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뜻"이라며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는 ICT융합산업을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시켜 4차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의정활동

여성기업의 성장과 기업하기 좋은 전주만들기에 기여 감사패 수상

송영진 의원이 지난 12월 6일 전주시여성기업인협의회(회장 한춘자)로 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전주시여성기업인협의회에 따르면 송 의원이 평소 지방자치발전과 선진의정 구현을 위해 진력하였으며 특히 여성기업의 성장과 기업하기 좋은 전주만들기에 앞장서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기에 감사패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송영진 의원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에, 여성기업인들의 활약은 사회의 큰 원동력이고 힘이 된다"며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으로서 여성기업의 성장과 저변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동화 의원 (진북, 인후1·2동, 금암1·2동)



의정활동

한국사회를 빛낸 대한민국 충효대상 의회부문 “2018 전주시발전공로대상” 수상

전주시의회 강동화 부의장이 지난 8월 24일 백범 김구 기념관 컨벤션홀에서 한국을 빛낸 대한민국 충효대상 조직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충효대상 의회부문 2018 전주시발전공로대상을 받았다. 강 부의장은 그동안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을 진심으로 섬기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을 뿐만 아니라 지난 10대 후반기 운영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열린 의회, 시민이 즐겨 찾는 의회를 만들고 시민 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데 크게 기여한 공로로 이 상을 받았다. 강 부의장은“시민의 행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전주시민의 뜻으로 생각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더불어 잘 사는 행복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의정활동

덕진구 사랑의울타리봉사단 ‘이웃과 함께해요~!사랑의 김장나눔 행사’

전주시의회 부의장 강동화 의원이 지난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에 걸쳐 덕진구 사랑의울타리 자원봉사단(회장 정은영)과 함께 ‘이웃과 함께해요~! 사랑의 김장나눔행사’에 참여했다. 강 의원과 사랑의울타리봉사단 회원 300여명은 부쩍 추워진 날씨에도 아랑곳 않고 배추를 손질하고 갖가지 양념에 사랑과 정성을 더해 맛깔스런 김장을 만들어냈다. 이번 행사를 위해 덕진구 사랑의울타리봉사단이 마련한 자체기금과 농협하나로마트 전주점, 전라북도, 한국자산공사전북본부 등 각계각층의 후원과 사랑이 더해졌다. 사랑의울타리표 김장김치는 덕진구 관내 취약계층 및 복지시설 300여 곳에 전달되어 이웃사랑 나눔 실천과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겨울 선물이 되었다.

김호성 의원 (진북, 인후1·2동, 금암1·2동)



5분 자유발언

전주시 노인복지정책 방향전환을 위한 제안

초고령사회 대비 어르신들의 취미, 여가 건강관리 등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거점 경로당 운영과 지역밀착형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제안한다. 노인인구 14%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 사회로 보는데 2018년 기준 전주시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1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집중 주거지역인 진북동의 경우 노인인구비율이 25%로 덕진구에서 노인인구수가 가장 많은 구도심지역 중 하나이다. 문제는 복지관을 중심으로 노인여가복지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 진북동 등 구도심 소외지역의 경우 접근성이 떨어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말로 어르신들이 만족하는 복지정책이 무엇일까 고민해보고 제도적으로 정책을 마련해서 지속적인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방향전환을 해야 한다. 이용접근성을 강화하고 어르신 복지의 거점역할을 하게 될 소규모노인복지센터 건립과 거점경로당 확대 정책은 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며 미래사회의 준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하다. 현재의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의 단점을 극복하고 어르신 여가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행복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의정활동

한가위 맞이 어르신 이·미용 봉사

김호성 의원이 지난 9월 17일 국제라이온스클럽 356-C (전북)지구 전주 라이온스클럽이 주최하고 노블리즈뷰티아카데미가 후원하는 한가위 맞이 어르신 이·미용 봉사활동에 함께 참여했다. 이날 금암2동 주민센터 지하 강당에서 실시한 봉사활동에 1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여 30여명의 지역 어르신께 이미용봉사 및 네일아트 봉사를 실시했다. 김 의원은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께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작지만 소중한 나눔을 함께 할 수 있어 뿌듯하고 함께하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정치는 봉사라고 생각하고 항상 지역 주민들에게 가까이 가서 대화하고 소통하는 생활정치를 실천하는 시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박선전 의원 (진북, 인후1·2동, 금암1·2동)



시정질문

모래내시장 화재재난 방지대책 수립 시급하다!

전통시장 화재는 한 번 발생하면 대형화재로 확대되어 심각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함으로써, 지역 상인들의 생계수단을 위협하고 있다. 모래내 시장의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모래내 시장의 화재 위험성은 매우 높으며, 일단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와 그 피해액이 다른 화재사건 보다 훨씬 클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화재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제반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며 화재 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용이하도록 진입도로의 확보 및 미로형 골목시장 곳곳에 소화전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상인들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보험상품의 개발과 보험가입에 전주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 최근 전주시는 폭염지수가 높다는 환경부의 발표와 관련해 도심 녹화를 통한 열섬효과 저감을 위한 천만그루 나무심기 프로젝트와 도시 바람길 숲 조성사업 등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 확보에도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주변부가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구도심지역은 숲조성이 힘들고 바람길 조성도 어렵다. 이에 대구시, 서울시 등에서 운영하는 클린로드 시스템과 쿨링포그를 적극 설치하여 폭염에 대처할 것을 제안한다.



의정활동

인후1동 자생단체협의회 사랑愛 김장담그기 봉사

박선전 의원이 지난 11월 28일 인후1동 자생단체협의회 '사랑愛 김장담그기' 행사에 동참했다. 이날 덕진구 인후1동주민센터 주차장에서 열린 '사랑愛 김장담그기'행사는 '얼굴없는 천사'가 김장비용 일체를 기부하고, 주민자치위원회 등 자생단체 회원들이 함께 김장을 담가 매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올해도 인후1동 자생단체 회원 60여명이 배추 250포기 분량의 김장김치를 담가 홀로어르신과 저소득 가정 등 100여 세대에 전달했다. 박 의원은 이날 바쁜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사에 참여하여 봉사자들을 격려하고 김장담그기 봉사활동에 적극 동참했다.

서난이 의원 (우아1·2동, 호성동)



5분 자유발언

전주시 기금의 통 · 폐합과 효율적인 운용을 실시하라!

전주시에는 법정의무 8종, 법정재량 3종, 자체기금 3종의 총 14개의 기금이 있으며 지난해 통과한 에너지사업기금까지 한다면 총 15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다. 중앙정부는 이전부터 기금관리에 효율성을 위하여 기금의 통 · 폐합과 통합기금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전주시에서는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는 기금의 통 · 폐합을 고려하고, 기금 필요성의 사유가 일반회계의 지출로도 가능한 경우는 일반회계로 사업을 진행해야한다. 두 번째는 이자로만 진행되는 기금에 있어서 효율성을 제고해봐야 한다. 1%대의 금리로는 이자만으로 사업을 진행하기에 효과성도 적고, 참여도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통합기금의 관리를 활용하여, 여유자금과 사업자금을 분리하고, 여유자금은 정기예금으로 전환하여 이자수익률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전주시는 여유자금 중 운영자금은 개별기금에서 관리하고, 적립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기금운용에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집행부가 대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의정활동

전주시의회 미래세대연구회 청년주거 문제 해결 위한 초청강연회

제11대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미래세대연구회」(회장 서난이 의원)는 23일 전주시 청년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초청강연회를 가졌다. 전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강연회는 인구 및 주택 분야의 전문가인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을 초빙하여 '청년을 포함하는 모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지자체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강연 후, 전주시의 청년주거문제 적용 가능성 및 올바른 방향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미래세대연구회장 서난이 의원은 "전주시 청년주거 빈곤문제는 앞으로 주거복지정책의 주요 영역으로 관리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정책개발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본 연구회는 청년주거문제, 고령화 · 저출산 등의 세대별 다양한 현안 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윤근 의원 (우아1·2동, 호성동)



시정질문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및 전주시 보행환경에 대하여

가로등에 매달려 나풀거리는 수많은 광고 현수기들은 그 자체로 몇 가지 문제들을 잉태한다. 우선 도시 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둘째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의 시야에 혼선을 줄 수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을 상존시키게 한다. 셋째 지정게시대를 통한 현수막광고와 비교를 해도 형평성이 어긋난다. 가로등 현수기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적을수록 좋은 것이고 특히나 수익 목적의 민간광고는 없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볼 수 있다. 전주시가 자랑하는,'아동친화도시 전주'에서 우리 아이들은 안전하게 걷고 뛸 수 없다. '국제슬로시티 전주'에서 우리는 편안하게 걷고 쉬며 '느림의 미학'을 만끽할 수 없다. '국제안전도시 전주'에서 우리 모두는 불법주차된 차량사이를 비껴 걸어야 하고 달리는 차들의 눈치를 보고 요령 있게 피해 다녀야 하며 인도와 차도의 구분 없는 도로에 몸을 내맡겨야 한다. 최소한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비전과 포부가 빈말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실효적이고도 분명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노력, 그리고 지금 현재 무참하고도 고질적으로 훼손되고 있는 보행권리의 회수를 위한 당장의 행정권이 발동되어야 할 것이다.



5분 자유발언

택시 전액관리제는 전주시민의 보편적 이익에 부합합니다.

전주지역 택시 완전월급제와 관련하여 수많은 논란과 파행들이 길게 이어지고 있다. 하루빨리 작금의 상황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원리원칙에 입각한 전주시의 엄중한 행정권 발동을 주문한다. 법에 근거한 행정권 행사는 전주시장의 권한임과 동시에 책무이기 때문이다. 1997년 9월1일부터 시행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전액관리제를 규정하고, 국토부 훈령에 전액관리제 시행요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전액관리제가 법으로 규정되고 현재까지 논란이 되는 것은 사납금제라고 하는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적폐라고 할 수 있다. 전주시는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액관리제 위반 19개 회사에 1차 과태료를 부과했다. 늦었지만 너무나도 당연한 행정권의 발동이다. 그리고 10월5일, 전북 지방노동위원회 역시 대림교통의 전액관리제 도입 및 임금협약 중재안에 덧붙여 전주지역 모든 택시업체의 전액관리제 도입을 촉구했다. 대한민국의 현행법은 전주시 행정 공권력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가리키고 있다. 제대로 행사되는 행정권력은 사회정의를 만들고 사회약자를 보듬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 전주시민들이 박수치고 응원할 것이다.

박윤정 의원 (비례대표)



5분 자유발언

교통영향평가 사후평가제 실시하라!

도시개발, 대규모 시설 등의 사업승인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여러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사업이 완료되면 평가결과가 무색할 정도로 환경과 주변 교통에 악영향을 끼친다. 많은 시민이 체감하는 관내 주요 예식장 인근은 주말마다 정체가 계속되고, 에코시티는 단지 내 도로를 비롯해 주변 인접도로까지 주요시간대 교통대란이 일어난다. 교통영향평가는 교통의 수요를 예측하고 검토·분석하여 교통정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시행, 즉 대규모 건축물 신축, 대량의 교통수요 유발 사업에 앞서 시행되는 제도이다. 교통수요 예측은 정확해야 하며, 그 검토·분석 역시 매우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전주시의 주요 도시개발지역, 대규모 상업시설, 예식장 등의 인접도로는 심한 교통혼잡구간이 되었다. 이는 교통영향평가의 잘못된 예측과 평가에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교통영향평가 용역사와 전주시는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정확한 예측과 분석을 통해 신뢰도 높은 영향평가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이에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사후평가를 위한 조례 제정을 촉구한다.



의정활동

송천1동 사랑의울타리 봉사단, 어르신 찰밥대접

박윤정 의원이 지난 8월 9일 송천1동 사랑의울타리 봉사단, 어르신 찰밥대접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덕진구 송천1동 사랑의울타리 봉사단은 송천여자경로당을 방문하여 3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찰밥을 대접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사랑의울타리 봉사단 회원 10여명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영양찰밥과 과일, 떡 등을 제공하였으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를 살피며 말벗이 되어 드리는 등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송천1동 사랑의울타리 봉사단 회장은 "작고 소소한 점심식사 대접에도 어르신들께서 좋아해 주시니 되려 감사하고 기쁘다"며 "앞으로 관내 어르신들을 위해 자주 찾아뵙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윤자 의원 (비례대표)



의정활동

자원봉사 '3,000시간 봉사상' 수상

이윤자 의원이 자원봉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 자원봉사자에게 주는 '자원봉사 3,000시간 봉사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26일 대한적십자사(회장 박경서)로부터 적십자 인도주의 운동에 적극 참여해 고난경감과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봉사상을 받았다. 이의원은 그동안 대한적십자와 함께 재난 현장에서의 봉사활동은 물론, 어려운 이웃돕기 등에 앞장서오는 등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 매진해왔다.



의정활동

전북정신재활시설협회 '해바라기 축제' 참여

이윤자 의원이 지난 11월 5일 전주시청 강당에서 열린 2018년 해바라기축제 '전주시 정신질환자 재활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 조례제정에 대한 필요성과 조례 제정 방향에 대한 발제자로 나섰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위한 정책이 입원 및 치료 중심체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중심으로 개편됨에 따라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윤자 의원은 "상당수의 정신질환자들이 스스로 증상관리를 통해 지역사회와 어우러져 살아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전주시 역시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당당히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승진 의원 (비례대표)



5분 자유발언

반려동물 정책의 필요성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 촉구

현재 「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 중이다. 반려동물에 대한 교육 및 지역에서 일어나는 동물로 인한 민원의 완충역할, 입양상담, 저소득층의 반려동물지원, 반려동물 유기방지 활동 등을 운영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시민들과 관련 전문가 및 애견 단체가 함께 충분한 의견수렴 및 토론을 거쳐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전주시 동물복지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결과 동물친화도시 전주를 위한 분야별 추진사업으로 유기동물보호센터 제안과 각종 동물복지 업무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동물친화형 도시구현이라는 목표에 맞게 동물복지 전담조직의 재정비와 전주시민의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정책이 필요하다. 전주시가 시민들과 함께 문화 확산을 전개한다면 반려동물과 시민이 공존하는 훌륭한 사례를 만들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전국에 선진 반려문화 운동으로 확산 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다른 생명과의 공존은 매우 중요하다. 동물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법과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행복한 삶을 살 권리를 갖게 되기를 희망한다.



행정사무감사

공영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개선해야

한승진 의원이 전주시를 상대로 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의 시스템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 의원은 "공영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의 이용객 중 신용카드 미소지자에 대한 요금 수납 대처 방안이 없다"며 무인정산 시스템의 문제점과 시설관리공단의 예방 및 관리 대책 부실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공영주차장의 무인정산시스템 주차요금 정산은 신용카드로만 할 수 있는데 카드가 없다고 말하면 계좌번호 안내 후 차단기가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수금액이 발생하며 심지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미수납금액에 대한 징수방안 노력과 더불어 무인정산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개선을 요구했다.

허옥희 의원 (비례대표)



의정활동

전주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동발의

허옥희 의원은 제35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전주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전주시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의 공동주택을 비롯해 공공기관, 학교 및 상업지역 등의 주차장을 일정시간동안 개방을 유도하고, 유휴 주차장 제공에 참여한 건물주(주차장 관리주체)에게 무료 개방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당지역의 불법주차 감소 및 주차공유를 통해 주차난 해소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이다.



의정활동

전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동발의

허옥희 의원은 제35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전주시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전주시 출자 · 출연 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경영을 합리화 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 상 상위법에 근거한 평가 시행 및 평가 활용의 사항이 미비하여, 이를 명시하고 법령에 준하는 전주시의 지도 · 감독 및 시정 명령 등의 법령에 서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자 · 출연기관의 건전한 운영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출연기관이 시장에게 제출한 예산 및 결산서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여, 출연기관의 재정운영에 대한 적절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시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지방의회 체험교실 운영

전주시 관내 초등학생 대상, 풀뿌리 민주주의 체험 기회 제공

전주시의회는 미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이끌어 갈 초등학생들에게 주인의식을 함양하고,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지난 2007년부터 전주시 관내 초등학생(4학년~6학년)과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방의회 체험교실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홍보 동영상 관람 및 설명, 3분 자유발언, 퀴즈풀이, 의회청사 견학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지방의회를 체험하게 된다. 체험교실은 갈수록 교사와 참여 학생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전국 지방의회 우수 사례로 타 지역 지방의회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지방의회 체험교실은 매년 학기 초 교육지원청 또는 전주시의회를 통해 신청하면 참여할 수 있다.

문의 ☎ 063-230-3731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줄이는 친환경 생활문화 확산 다짐

2018년 9월 4일부터 전주시의회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전면 중단됐다. 일회용품 소비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줄이기 위해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다짐 행사'를 개최하고 의회 청사 내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전주시의회는 그동안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우산 빗물제거기설치, 의장 · 부의장실 및 각 상임위원장실 종이컵 퇴출, 각종 회의 시 다회용컵 사용 등의 노력을 해왔으며 이날 행사를 통해 모든 의원과 직원들도 일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 박병술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직원들은 각자 개인이 사용하는 머그컵이나 텀블러를 가지고 참석, '일회용품 줄이기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일회용컵 NO, 개인용컵 OK'등의 구호를 외치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로 다짐했다.

전주시의회는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미흡하지만 작은 실천을 통해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여주기식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친환경 생활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UP
CYCLE


「일회용품 줄이기」실천다짐 대회
2018. 9. 4(화)


1회용품 ZREO
건강한 지구를
만듭니다
일회용품 줄이기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1회용품 덜 쓰고
재활용품 더 쓰고
나부터 시작합시다
일회용컵 NO~
개인용컵 OK!


팔복예술공장
주차장


PALBOK









예술을 짓는,

팔복예술공장

팔복동 공장 지대에 봄이 왔습니다. 폐허처럼 방치되었던 낡은 공장이 아름다운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3월 23일 첫 문을 열었습니다. 버려진 유리 조각, 녹슨 형광등, 낡은 카세트테이프, 오래된 포스터 등 공장 구석에 쌓여 있던 폐품들이 작가의 손길을 거쳐 아주 멋진 작품으로 재탄생했습니다. 팔복동 아이들을 위한 무한상상의 예술놀이터가 생겼고, 주민들이 어울려 미래를 함께 꿈꾸는 희망카페와 아트숍이 들어섰습니다. 너른 마당은 시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예술정원이 되었습니다. 이팝나무 흐드러지게 피는 5월 초까지 전국 26개 팀 30여 명의 작가 전시도 팔복예술공장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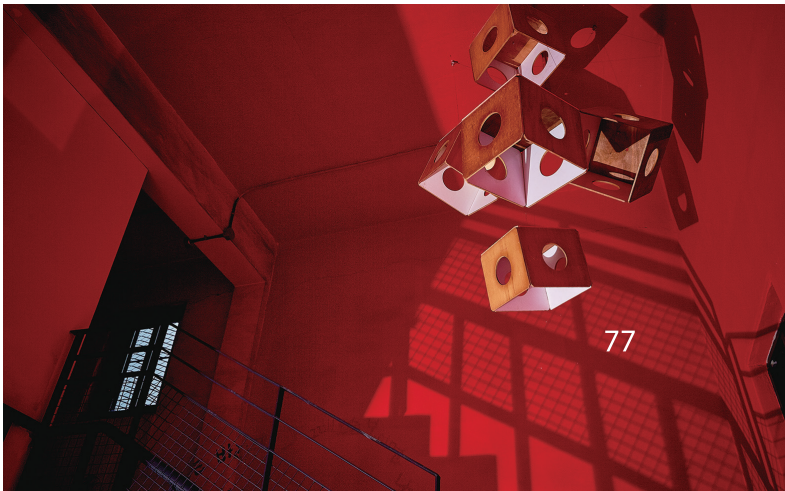
버려진 폐공장이 예술 공장으로 탈바꿈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공간으로 바뀔 수 있다니 이 얼마나 놀랍고 신나는 일인가요. 팔복동 공장마다, 발길마다 봄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누구라도 즐기고, 어울릴 수 있는 문화플랫폼 '팔복예술공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팔복예술공장
주소 | 전주시 덕진구 구레들1길 46
문의 | 063-283-9221









숲속의 오감 놀이터

유아숲 체험원





야호프로젝트를 시작한 이후 전주의 육아 환경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아이를 돌보고 보호한다는 어른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요. 그중 하나가 바로'유아숲 체험원'입니다. 지난 4월 문을 연'인후공원 유아숲 체험원'은 인공시설물을 최소화하고 자연친화적으로 조성된 숲 속 놀이터입니다. 아이들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키워줄 체험 프로그램이 가득하지요. 하반기에는 전주에 유아숲 체험원이 한 곳 더 마련됩니다.

숲은 그 자체가 선생님입니다. 어른들의 가르침 없이도 아이들 스스로 곤충, 나무, 꽃 등을 관찰하며 오감을 열어 세상과 마주합니다. 자연 속에서 맘껏 뛰놀고 배우며, 함박웃음 짓는 아이들의 모습, 생각만 해도 흐뭇해지지 않으세요?

인후공원 유아숲 체험원 |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산4-6











2019년도 회기 운영 계획

월 별	회 기	회의일수	주 요 안 건	비 고
연 간	**총 10 회 (정례회2회/임시회8회)**	110		
1월	**제356회 임시회** 1.25.(금)~1.29.(화)	5	· 조례안 등 안건심의 및 현장활동	
2월	**제357회 임시회** 2.14.(목)~2.21.(수)	8	·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청취 · 조례안 등 안건심의 및 현장활동	*설날연휴 (2.4~2.6)
3월	**제358회 임시회** 3.21.(목)~3.28.(목)	8	· 시정에 대한 질문 ·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 조례안 등 안건심의 및 현장활동	*JEC World2019 –탄소복합제 박람회 (3.12~3.14)
4월	**제359회 임시회** 4.17.(수)~4.25.(목)	9	· 조례안 등 안건심의 및 현장활동	
5월	**제360회 임시회** 5.15.(수)~5.21.(화)	7	· 조례안 등 안건심의 및 현장활동	*국제영화제 (5.2~5.11) *한지문화축제 (5.3~5.5)
6월	**제361회 제1차정례회** 6.12.(수)~6.26.(수)	15	·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심의 ·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 · 조례안 등 안건심의 및 현장활동	*전주단오제 (6.7~6.8)
7월	**제362회 임시회** 7.16.(화)~7.24.(수)	9	·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청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 조례안 등 안건심의 및 현장활동	
9월	**제363회 임시회** 9.23.(월)~9.30.(월)	8	· 시정에 대한 질문 · 조례안 등 안건심의 및 현장활동	*추석연휴 (9.12~9.14)
10월	**제364회 임시회** 10.21.(월)~10.29.(화)	9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기간 · 방법) 결정 · 조례안 등 안건심의 및 현장활동	
11월 ~ 12월	**제365회 제2차정례회** 11.18.(월)~12.19(목)	32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시정에 대한 질문 · 2019년도 제2회 추경 및 2020년도 예산안 심의 · 조례안 등 안건심의 및 현장활동	

※ 매 회기별 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 협의과정과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마치며...

2018년 7월, 첫걸음을 내디딘 전주시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는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전주시의회'를 기치로 시민의 행복과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때로는 아쉬움이 남는 일도 있었지만,
그 또한 내일이라는 희망의 밑거름이 되리라고 확신하며,
2019년 의정활동 역시 시민을 최우선으로,
66만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편집위원
김현덕, 강승원, 박선전, 박윤정, 허옥희 의원


의회
전주시의회
JEONJU CITY COUNCIL